

1.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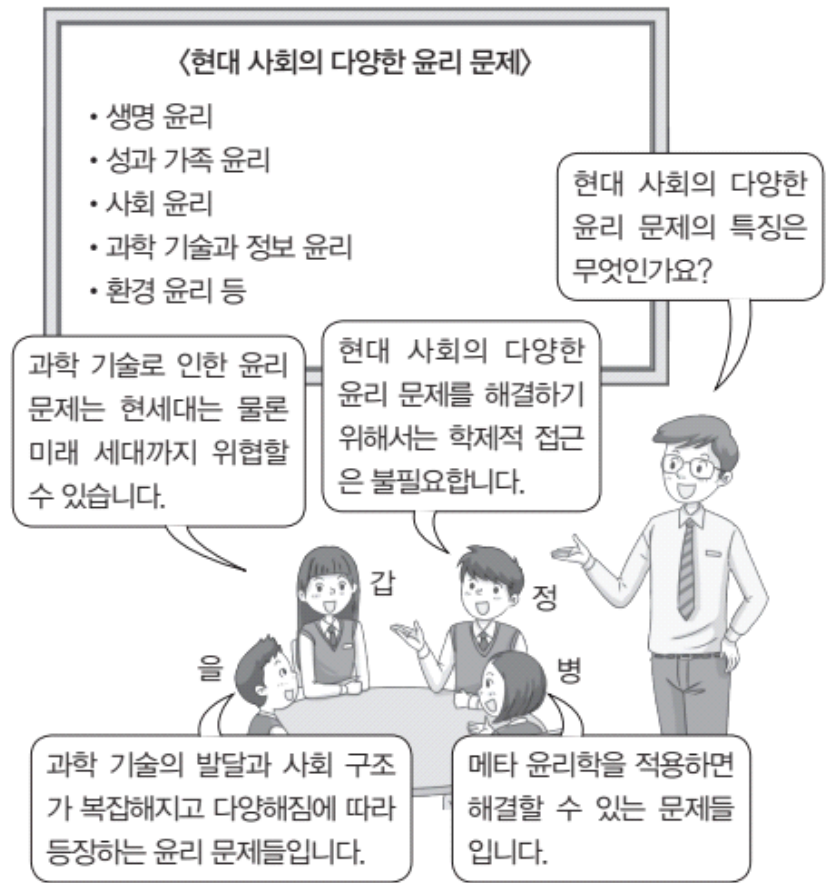
갑 :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가 각각 집단의 관습과 개인의 품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므로 도덕은 개인적 수준에서 사용하고, 윤리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
을 : 도덕이 한 구체적 개인이 실존적으로 선택한 개인적 행위의 원칙이자 규범이라면, 윤리는 한 추상적 인간 집단이 규정한 행위의 원칙과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보 기>

ㄱ. 갑 : 윤리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ㄴ. 갑 : 도덕은 언제나 개인 차원의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ㄷ. 을 : 도덕은 윤리와 달리 집단적 행위의 규범이다.
 ㄹ. 갑과 을 : 도덕과 윤리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을, 정
- ④ 갑, 병, 정
- ⑤ 을, 병, 정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윤리학의 규범을 가지고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새로운 윤리학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문제까지도 폭넓게 다룬다.

- ① 도덕적 행위의 본질과 원리의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②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 ③ 도덕적 언어들이 서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 ④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시한다.
- ⑤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규칙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한다.

4.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삶의 길잡이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윤리적 삶을 실천하며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도덕 원칙과 이론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다'라는 윤리학의 기본 용어가 '바란다'로 정의되면, 윤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 ① (가) : 도덕규범을 객관적 사실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② (가) :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 ③ (나) :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 ④ (나) :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 윤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5.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구조, 즉 도덕 언어와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개인의 도덕적 경험과 사회의 도덕 규범에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② 도덕적 관습과 행동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③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④ 윤리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환경 및 생명 윤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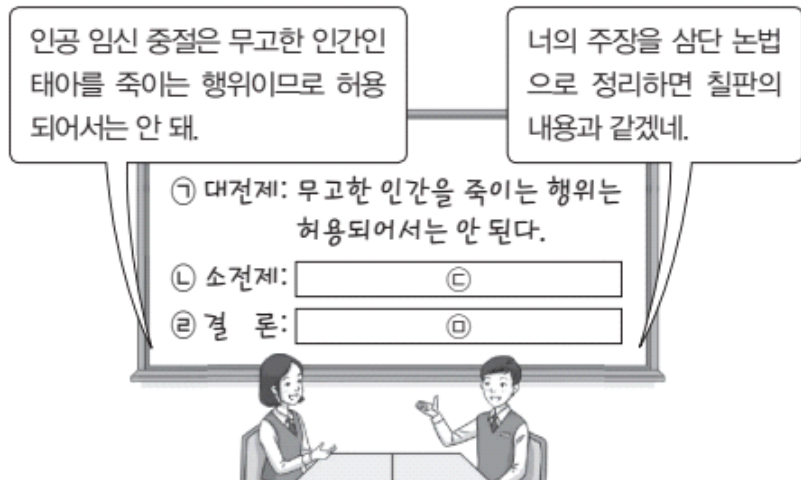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옳곧게 성공한다.

—<보 기>—

ㄱ. 쾌락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곧 최고선이다.
 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면 용기의 덕을 지닐 수 없다.
 ㄷ. 품성적 덕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중용을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
 ㄹ.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용의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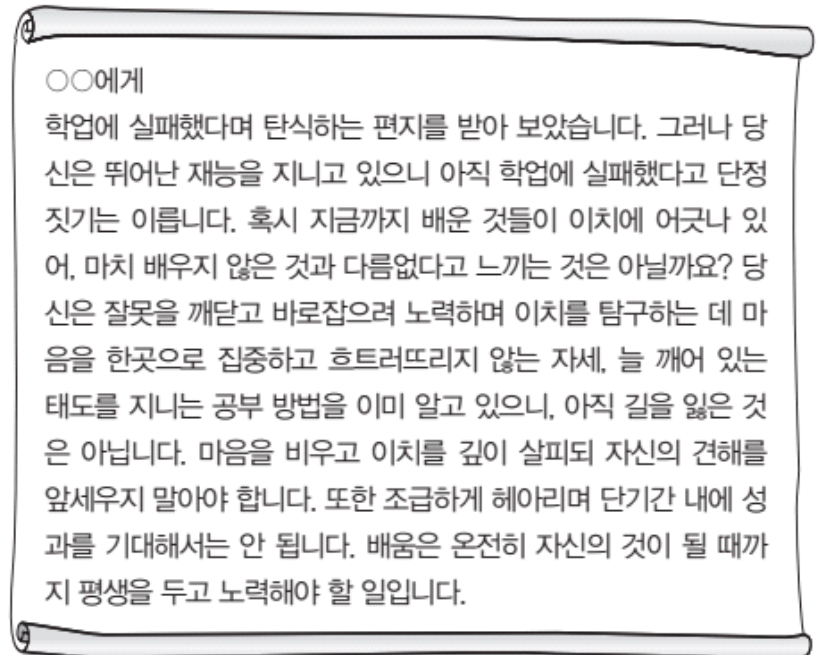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7.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계에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가 들어가야 한다.
- ② ㉡ 단계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 판단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 ③ ㉢에는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인 태아를 죽이는 행위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 ④ ㉣ 단계에서는 도덕 원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⑤ ㉣에는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들어가야 한다.

8.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금함을 버리고 차분히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 ② 배움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지속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③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기보다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한다.
- ④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⑤ 학업 성과는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윤리학은 일반적인 도덕 이론이나 원리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현실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사용이 가진 성격, 기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와 개념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도덕적 사고를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X: 도덕적 언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Y: 도덕적 추론 과정의 타당성 검증을 주된 과제로 강조하는 정도
- Z: 도덕적 갈등 해결을 위해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윤리학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해야 하고, 도덕 규칙이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해야 한다.</p> <p>을 : 윤리학은 인간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려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리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탐구해야 한다.</p> |
| (나) | |

- ① A :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 윤리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A : 윤리학은 도덕 관습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기술을 강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 윤리학은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을 본질적인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11.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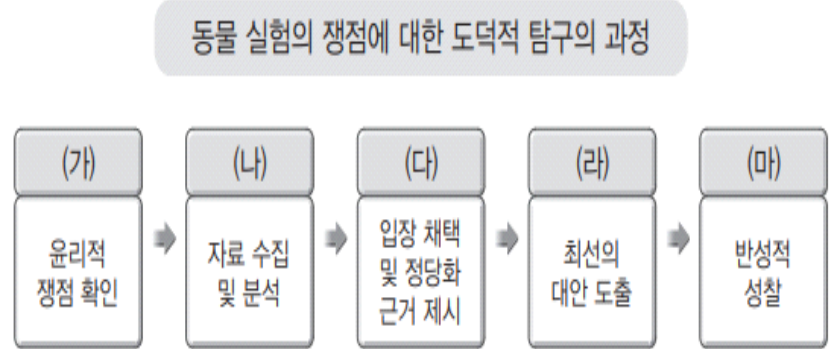
| | |
|-----|---|
| (가) | <p>갑 :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와 같은 도덕 판단이나 가치 판단이 타당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도덕적 추론이나 가치에 관한 추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윤리학이 지닌 핵심 과제이다.</p> <p>을 :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윤리학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기며, 윤리 이론이나 원칙은 그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
| (나) |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 기>

ㄱ. A :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ㄴ. B :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ㄷ. C :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가?
 ㄹ. C :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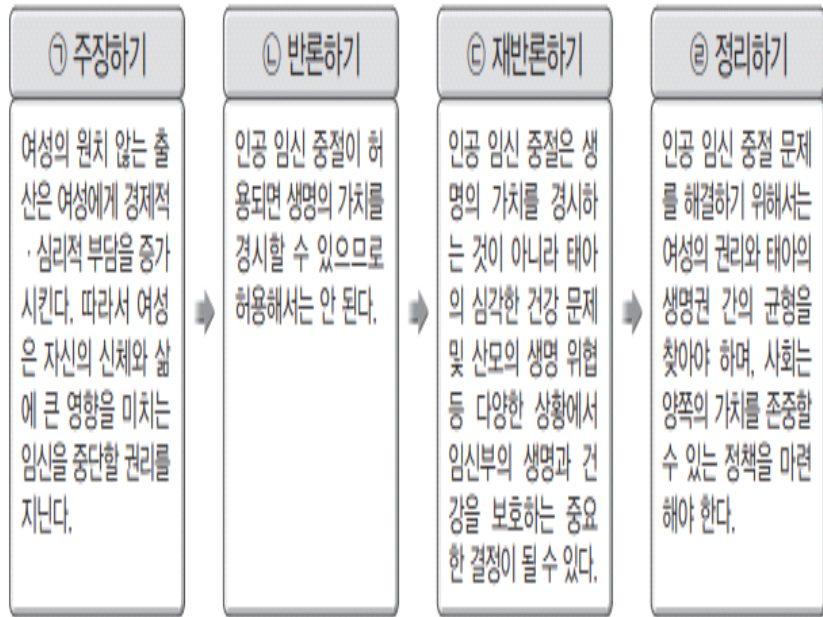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2. (가)~(마)는 도덕적 탐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동물 실험이 윤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해한다.
- ② (나) : 동물 실험과 관련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③ (다) : 동물 실험에 대한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서를 배제한다.
- ④ (라) : 동물 실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윤리적 쟁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한다.
- ⑤ (마) : 동물 실험과 관련한 도덕적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의 변화를 검토한다.

13. 다음은 일반적인 토론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기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발표하는 단계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주장에서 오류나 부당한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③ ㉢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 ④ ㉣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단계이다.
- ⑤ ㉠과 ㉢에서는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14.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에게
 윤리학 연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윤리학 연구는 우리가 편견과 독단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 판단을 이끌어 줄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학 연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더욱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쟁점을 분류하고 정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과 사회 전체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우리 모두가 준수할 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칙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 ① 도덕적 문제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앞세워 해결해 나가야 한다.
- ② 윤리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도덕적 삶은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없다.
- ④ 윤리학 연구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⑤ 윤리학 연구는 도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여 마음이 바른지, 학문이 정진하고 있는지, 행실에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즉시 고치고, 모두 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더욱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을 : 부귀영화를 얻는 방법에만 몰두하며 노심초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간에게 최고선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성찰하는 데 있으며, 성찰이 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다.

- ① 갑 : 학문의 완성을 이루었으면 지속적인 자기 수양을 중단해야 한다.
- ② 갑 : 자신의 마음과 행동은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③ 을 :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⑤ 갑과 을 : 자기 성찰과 도덕적 수양은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6.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이를 침묵시키는 행위는 심각한 침해가 됩니다. 그 심각성은 피해가 소수에게 가해지느냐 다수에게 가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침묵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한 것을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우리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잃고, 틀리면 오류와 의충들을 통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의견을 침묵시키려 할 때 그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견의 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① 다수가 제기한 의견이라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가?
- ② 어떤 의견이라도 진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③ 개인의 잘못된 의견이라도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 ④ 개인은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⑤ 소수가 제시한 의견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17.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이 관직을 맡는 이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② 사회 규범은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데 기여할 수 없다.
- ③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이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④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⑤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느닷없이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 것이다. 이는 그 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서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부터 볼 때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 ① 백성에게 오류를 바탕으로 인륜을 가르쳐야 하는가?
- ② 사람은 누구나 수양으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③ 백성을 형벌이 아니라 도덕적 교화로만 다스려야 하는가?
- ④ 서(恕)를 실천하면서 인(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⑤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예(禮)를 실천해야 하는가?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홀로 자기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지 않았고, 홀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을 :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으니, 도구가 많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도록 한다. 배와 수레가 있지만 탈 일이 없다. 사람들이 다시 노끈을 엮어 쓰게 하고, 거처를 편안히 여기며, 그 풍속을 즐기도록 한다.

<보 기>

ㄱ. 갑 :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ㄴ. 갑 : 자기 수양[修]은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ㄷ. 을 : 인위적 규범으로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
 ㄹ. 갑과 을 :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기의 신체가 손발의 존재를 잊고, 형체 있는 육체를 떠나 마음의 지각까지 버려 모든 차별을 초월하는 것을 좌망[坐忘]이라 한다. 이는 위대한 도[道]에 동화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을 : 수행하는 것은 '나[我]'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이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방탕해진다. 이것을 떨쳐 버려야 미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으며 열반에 들게 된다.

- ① 갑 : 인[仁]과 예[禮]의 규범이 사라져 사회가 혼란해졌다.
- ② 갑 : 인위의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③ 을 : 죽음과 병듦, 늙음은 고통이지만 삶 자체는 즐거움이다.
- ④ 을 : 완전한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수행 과정 자체에 존재한다.
- ⑤ 갑과 을 : 성인[聖人]은 불변하는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열반에 이른 사람이다.

2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 ① 선의지는 그 자체로 조건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 ② 도덕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③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이다.
- ④ 쾌락과 고통은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된다.
- ⑤ 선악에 대한 판단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2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든,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된다. 나머지 모든 것은 이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서 그것에 도움이 될 때 바람직한 것이 된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자신의 용돈을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먹는 데 쓸지, 아니면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쓸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공리의 원리보다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식욕 충족으로 얻는 쾌락의 양은 계산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③ 용돈 사용에 참고해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④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⑤ 행복은 감각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도 증진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2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따라 영원법에 의해 규제받으며, 이성적 피조물은 이를 순종하는 자로서 영원한 이성을 분유(分有)한다. 이성적 피조물은 자연법을 통해 올바른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에 부여(分與)*한 것을 자연법이라 부른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분여(分與) : 나누어 줌

<보 기>

- ㄱ. 신의 법인 영원법에서 모든 하위의 법이 나온다.
- ㄴ. 이성을 발휘하여 자연적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ㄷ. 자연법으로부터 인간이 준수해야 할 행위의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 ㄹ.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통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을 통해 형성됩니다. 나는 형제, 사촌, 손자이며, 가계와 마을 공동체, 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는 우연한 특성이 아니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제거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본질이며, 나의 책무와 의무를 정의합니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한 공간을 계승합니다. 만약 이 공간이 없다면 그는 무의 존재이거나 이방인, 추방자가 됩니다.



<보 기>

- ㄱ. 행위자의 품성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ㄴ. 공동체는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집합에 불과하다.
- ㄷ. 습관에 의해 형성된 품성은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 ㄹ.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배제하고 품성을 평가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5.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 어진[仁]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하는 대로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남도 이루게 해 준다. 스스로를 비추어 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을 :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한다. 성인은 모든 일이 생겨나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나 가지려 하지 않고, 공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 X: 예(禮)를 바탕으로 인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 Y: 문명의 발달을 거부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하는 정도
- Z: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하는 행위의 실천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사람에게에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옛 제왕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정치를 베풀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정치를 실행하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을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은 비우고 백성의 배는 든든하게 하며, 백성의 뜻은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는 강하게 만든다. 또한 백성을 무지(無知)하고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며, 영리하다는 자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한다. 역지로 다스리려 하는 일이 없으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 ㄱ. A : 통치자는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시비(是非)의 마음을 형성해야 한다.
- ㄴ. B :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닦아야[修]한다.
- ㄷ. C : 백성이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
- ㄹ. C :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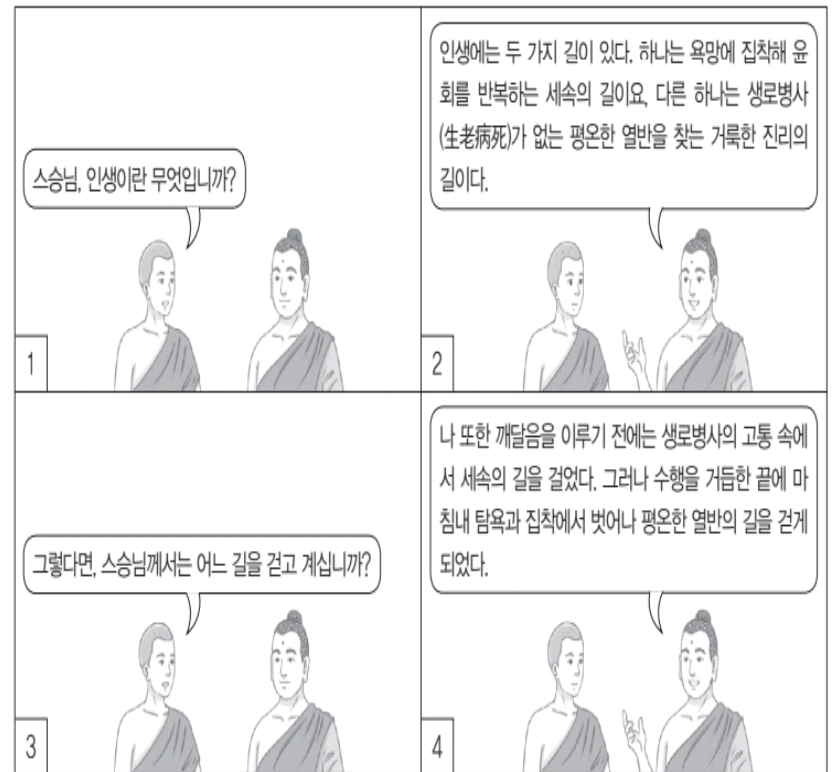
2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연기법(緣起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을 :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보다는 기(氣)로 들어야 한다. 기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자신의 주장을 비운 채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도는 오직 빈 곳에만 모일 수 있는 법이다. 고요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바로 심재(心齋)라고 한다.

- ① 갑 : 만물을 독립된 실체로 바라봐야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② 갑 :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존재에게 의지해야 한다.
- ③ 을 : 인위적인 제도와 사회 규범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④ 을 : 선악에 대한 분별적인 지식을 버려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 상호 의존하는 존재들은 고정된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28. 다음 가상 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불멸에 대한 집착은 죽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 ㄴ. 누구나 중도의 수행을 통해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
- ㄷ.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깨달음은 자비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 ㄹ. 극단적 고행에서 벗어나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에게
 자네가 보낸 자연법에 대해 묻는 편지에 회신을 보내네. 자연법은 원래 습성이 아니지만 인간은 양지(synderesis)를 통해 자연법을 내면화하여 습성처럼 간직하게 되네. 그리고 자연법에는 여러 계명이 있으며 그중 일차적 계명은 '선은 행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네. 이 계명을 바탕으로 생명 보호, 출산과 양육, 진리 탐구, 사회생활 유지 등 이차적 계명이 나온다네. 덕 있는 행동은 인간 본성에 맞기 때문에 자연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네. 그러나 특정한 행동이 처음부터 본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덕을 기쁨으로써 자연법을 따르게 될 수도 있네.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자연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네. 따라서 자연법의 일차적 계명은 변하지 않지만, 이차적 계명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네.

- ① 덕은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될 수 있는가?
- ② 인간은 자연적 본성에 근거한 도덕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가?
- ③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준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④ 환경의 변화에도 자연법의 적용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되는가?
- ⑤ 인간 사회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3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 일곱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든 쾌락의 가치를 합산하고, 모든 고통의 가치를 합산하라. 만약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이것은 그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준다. 고통 쪽으로 기울면 이것은 그 행위의 나쁜 경향을 말해 준다.</p> <p>을 :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결정해야 할 때, 각각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중 다수의 판단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쾌락의 질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도출된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p> |
| (나) | |

- ① A : 선한 동기의 행위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② A :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됨을 간과한다.
- ③ A :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B : 개인의 행복 증진이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31.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거짓말이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약속이나 신뢰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도덕 법칙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상생활에서 예사로 저지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리가 모든 윤리적인 문제의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무 사항이 양립할 수 없을 때 공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① 갑 : 확고한 개인의 준칙은 결코 도덕 법칙에 위배될 수 없다.
- ② 갑 :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③ 을 :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이 평가될 수 있다.
- ④ 을 : 인간의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⑤ 갑과 을 : 모든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해야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이다. 이는 그 자신을 향한 행위에서만 아니라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모든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타당하다. 이성이 없는 존재자라면,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며 물건이라 일컫는다. 그에 반해 이성적 존재자는 인격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는 인격을 아무렇게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기 생각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A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공정한 노동 관행으로 비판받는 다국적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A는 회사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의 결정으로 가족의 행복이 증진될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② 가족의 행복이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③ 자신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성찰과 동정심을 바탕으로 행위를 결정하세요.
- ④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짐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⑤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보편적 도덕 법칙을 우선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세요.

3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p> <p>을 : 외면적 선은 권력이나 명예처럼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경쟁을 통해 얻어지며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 반면 내재적 선은 실제로 탁월하고자 하는 경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의 성취가 실천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선이라는 사실이 내면적 가치의 특징이다.</p> |
| (나) |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 기>

ㄱ. A : 사회적 유용성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근거하여 행위해야 하는가?
 ㄴ. B : 전체의 선을 추구할 때 개인의 선을 양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ㄷ. B :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개인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가?
 ㄹ. C :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원리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4.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행위를 구분하고 도덕적 정당화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신경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도덕 판단과 행동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밝혀지면서 규범 윤리학의 설명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신경 과학이 제공하는 생물학적 설명은 도덕적 이유나 정당화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당위를 도출할 수 없으며, 도덕적 정당화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덕의 규범적 근거를 확립하고 도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규범 윤리학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신경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의 역할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두 학문 간의 조심스러운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 ① 신경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 ② 규범 윤리학과 신경 윤리학은 도덕적 행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신경 과학의 발달로 규범 윤리학의 설명 기능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④ 규범 윤리학은 신경 윤리학이 제공하는 과학적 설명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신경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규범 윤리학의 도덕적 정당화 기능은 유지된다.

3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옛날의 진인(眞人)은 삶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싫어할 줄 몰랐으므로 태어난 것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다가 덤덤하게 죽을 뿐이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따지지 않았으니, 그저 주어진 대로 만족했고 죽어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욕심으로 도를 훼손하지 않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것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인이다.

— <보 기> —

ㄱ. 삶과 죽음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ㄴ.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ㄷ.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곧 도를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ㄹ. 분별적 지식으로 생사(生死)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삼독(三毒)을 끊고 스스로 부끄러움도 없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거듭 수행하다 보면 삼독을 끊고 늙음, 병듦, 죽음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을 : 영혼이 가장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순간은 몸과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몸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이다. 이렇듯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재에 다가갈 수 있다.

- ① 갑 : 인간에게 삶은 행복을 주지만 죽음은 고통을 준다.
- ② 갑 : 죽음에 이르러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을 : 개인의 가치관은 죽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 ④ 을 : 사후에는 감각이 상실되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 ⑤ 갑과 을 : 죽음으로 인해 영혼과 육체는 모두 소멸한다.

3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박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 삶에 무한한 시간을 더해 주는 방식이 아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필멸성조차 즐길 수 있게 한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철저히 아는 사람에게는 사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가?
- ② 죽음 이후에 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죽음을 고통이라 여기지 말고 죽음에 의연해야 하는가?
- ④ 죽음은 감각 능력을 상실시키므로 불안해야 할 대상인가?
- ⑤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하면 쾌락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가?

3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을 : 현존재의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인수하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에 충분할 만큼 늙어 있다.

—<보 기>—

ㄱ. 갑 : 사람이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ㄴ. 갑 : 내세를 생각하기보다 현실의 도덕적 삶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
 ㄷ. 을 :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죽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죽음은 삶의 종말로서 인간에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신체 자율권 내지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임신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임신부에게 임신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통제권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태아 보호가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태아 생명의 가치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양측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며, 결국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절대적 원칙이 아닌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며, 임신부의 경험과 의견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①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임신부의 신체 자율권을 고려하여 인공 임신 중절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 최우선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을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 ④ 인공 임신 중절 문제는 여성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⑤ 임신 유지를 강제하는 행위가 임신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40.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주제: 안락사에 대한 이해

안락사와 자살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한 행위로 인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자살과 다릅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행위로 자살과 차이가 없습니다.

안락사와 자살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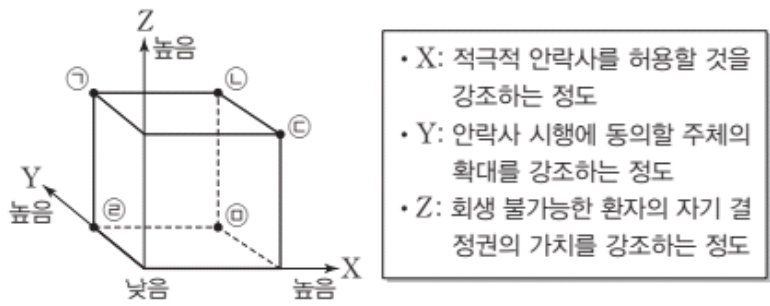
자살은 누구나 주체이자 대상이 되지만, 안락사의 대상은 희생 불가능한 환자로 국한됩니다.

- ① 갑, 을
- ② 갑, 정
- ③ 병, 정
- ④ 갑, 을, 병
- ⑤ 을, 병, 정

4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오직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명 치료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만 허용해야 한다.

(나)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약물을 투입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까지 허용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 윤리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 ㄴ. 갑 : 도덕은 언제나 개인 차원의 규범을 의미할 뿐이다.
- ㄷ. 을 : 도덕은 윤리와 달리 집단적 행위의 규범이다.
- ㄹ. 갑과 을 : 도덕과 윤리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신장과 골수는 생존자로부터 이식할 수 있고, 뼈와 각막은 심폐사 이후에 기증할 수 있으나, 심장과 간은 뇌사자에게서만 이식된다. 한편 뇌사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장기 이식을 통한 생명 구제가 가능하고, 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을 : 심폐 정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뇌 전체 기능 정지를 완전히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위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남용 위험도 있다. 장기 기증 의사만 사전에 명시한다면 심폐사 기준으로도 장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뇌사를 반드시 죽음으로 인정해야 할 근거는 없다.

- ① 갑 : 죽음의 기준이 유용성을 근거로 정립될 수 있다.
- ② 갑 : 심폐사가 죽음의 기준이면 어떠한 장기 이식도 불가능하다.
- ③ 을 : 뇌 기능 정지를 오류 없이 판단할 방안이 존재한다.
- ④ 을 : 심폐사와 뇌사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 죽음의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장기 기증을 활성화해야 한다.

4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義)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없다면 삶을 포기하고 의를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는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을 : 순수한 삶을 얻으려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영혼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지혜는 죽음을 맞이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육체와 영혼은 서로 얽혀 순수하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때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참된 지혜는 육신의 죽음으로 영혼이 해방될 때 가능하다.

- ① 갑 : 삶 자체의 가치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 ② 갑 : 죽음은 생사의 끊임없는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다.
- ③ 을 : 영혼과 육체의 영속성을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
- ④ 을 : 죽음은 참된 삶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⑤ 갑과 을 : 현실의 도덕적 삶은 내세의 행복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4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그대들이 비록 짧더라도 반드시 늙을 것이니 늙지 않기를 구해 열반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대들이 비록 건강하더라도 반드시 병들 것이니 방편으로써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대들이 비록 생명이 있더라도 방편으로써 목숨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을 :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 떠맡을 수 없다. 비록 현존재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지 특정 상황에서의 희생일 뿐이다. 그런 희생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지 않는다. 현존재는 각자 자신의 죽음을 반드시 혼자 맞이해야 한다. 죽음은 존재하는 한 오롯이 나만의 것이다.</p> |
| (나) | |

- ① A : 한 인간에게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A : 생사(生死)의 집착에서 벗어나 윤회하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A : 고정된 실체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짐을 간과한다.
- ④ B :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됨을 간과한다.
- ⑤ B : 현존재는 타인의 죽음을 떠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4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본래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황홀한 가운데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가 변화하여 기(氣)가 나타나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나타나고, 형체가 변화하여 인간이 태어난 것일 뿐이다. 지금은 다시 삶이 죽음으로 변화해 간 것일 뿐이다. 이는 마치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을 : 죽음은 모든 재앙 중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어떤 때는 죽음을 가장 큰 재앙이라고 여겨 피하고자 하고, 어떤 때는 죽음을 삶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으로 여겨서 붙잡고자 한다.

- ① 갑 :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다.
- ② 갑 : 삶과 죽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도(道)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 ③ 을 :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의 전환에 불과하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을 : 죽음은 고통 자체이지만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 ⑤ 갑과 을 :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불행이다.

4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한 후 자살 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보도의 방식과 내용이 후속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자살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위험이 크고, 자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는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통해 자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주변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 ① 자살 보도는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
- ② 자살 보도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 없이 자주 다루어져야 한다.
- ③ 자살의 원인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④ 자살의 방법을 자세하게 보도하여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 ⑤ 언론 보도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기능을 할 뿐이다.

4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비자발적 행위에 의한 임신이나 임신 유지로 임신부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임신부는 인공 임신 중절을 통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지닙니다.

을 : 동의합니다. 비자발적 행위에 의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행위이므로 다른 상황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갑 : 아닙니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는 출생한 인간과 달리 어디까지나 잠재적 인간에 해당하므로 생명권을 지니지 않습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는 태어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성인과 같은 생명권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은 비자발적 행위에 의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권이 침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① 임신의 원인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임신부의 생명권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가?
- ③ 인공 임신 중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살인 행위인가?
- ④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⑤ 인공 임신 중절을 하지 않으면 태아는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48.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0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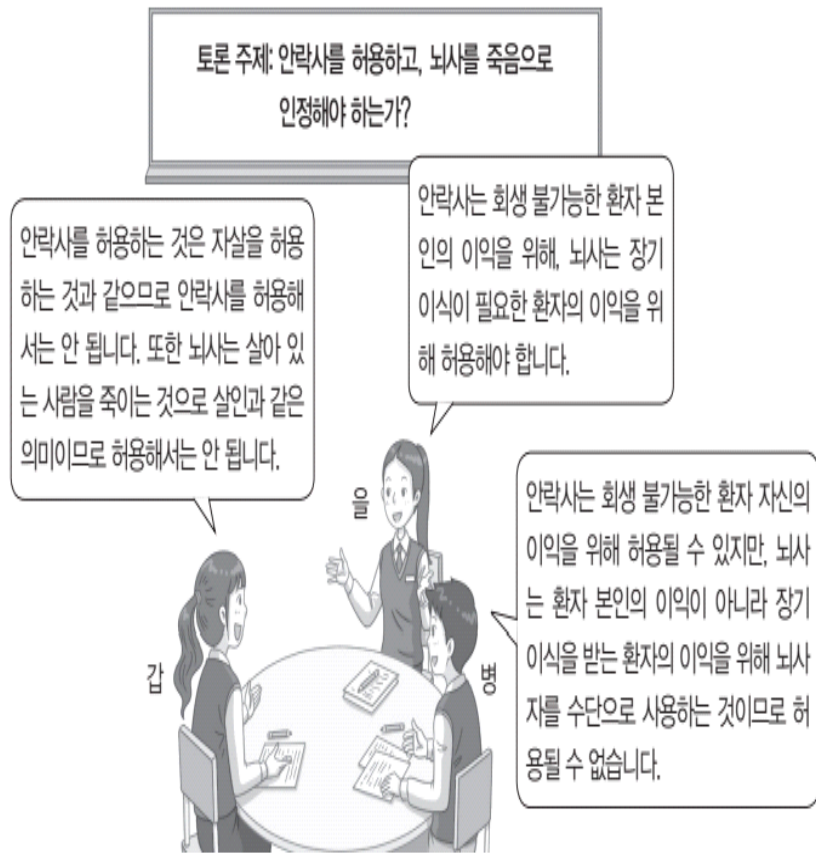
0000년 00월 00일

칼럼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안락사 합법화 요구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명 경시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고, 환자와 가족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는 삶의 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의 관점에서 안락사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말기 암 환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가족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 또한 감내하기 어렵다. 정부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미룰수록 환자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타국에서 보내야 하는 모순을 겪는다. 이는 오히려 생명권 보호라는 명분과도 배치된다. 반대론자들은 생명 경시와 의료 윤리 훼손을 우려하지만, 철저한 법적 장치와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불법적인 안락사가 은밀히 이루어지는 현실이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생명 존엄성은 단순한 생명 유지가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 ①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서는 안락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 ②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 ③ 안락사가 불법으로 취급된다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지속될 수 있다.
- ④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 존엄성은 삶의 질을 고려하여 존중받아야 한다.
- ⑤ 안락사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49.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 안락사와 뇌사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죽음에 이르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② 을 : 안락사와 뇌사는 각각 본인과 타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병 : 어떤 경우에도 이익 증진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갑과 을 : 행위의 결과를 배제하고 안락사와 뇌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을과 병 : 안락사의 허용 여부는 행위의 효용성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다.

50.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뇌사 상태는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된다.
- ② 뇌사 상태의 환자는 뇌 기능의 상실로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 ③ 뇌사 상태는 개인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죽음과 같다.
- ④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정된 의료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 ⑤ 뇌사 판정의 오판 가능성은 생존 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5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른 행위[正業]는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피하고 삼간다.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며, 부끄러움을 알고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위해서 자비심을 지니고 살아간다.

- ①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분이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② 모든 생명은 연기(緣起)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 ③ 신의 피조물인 생명은 존엄하면서도 일정한 위계를 지닌다.
- ④ 모든 생명체가 불변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인의(仁義)의 덕을 갖출 수 있기에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다.

52.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복제는 동일한 것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 복제 찬성론자들은 동물 복제가 인간에게 유용한 특성을 지닌 동물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물론 동물 복제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동물 복제의 경우 필연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지닌 개체의 복제에 이르게 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 복제 시행에 반대한다.

- ① 동물 복제는 유전적 다양성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 ② 동물 복제는 손실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
- ③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존에 기여할 것이다.
- ④ 인류의 식량난이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동물 복제를 확대해야 한다.
- ⑤ 동물 복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5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대체인을 만들 수 있고, 부모나 사회가 유전병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좀 더 우수한 형질의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므로 허용해야 한다.

을 : 주문 상품을 제작하듯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복제된 인간은 수단화되고 상품화되기 쉽다. 복제된 인간도 개체성을 지닌 독립적 인격체로 볼 수 있지만, 원본 인간의 붕어빵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자아 정체성 위기에 빠질 것이다.

—<보 기>—

- ㄱ. 갑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인간 개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복제된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복제된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ㄹ. 을과 달리 갑은 인간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4.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 배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출생 이후의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로부터 얻을 잠재적 이익과 인간 배아가 지닌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 장치를 갖춘 후에 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보 기>—

- ㄱ.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가?
- ㄴ. 인간 배아를 잠재적 인간 존재로 볼 수 있는가?
- ㄷ. 인간 배아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ㄹ. 인간 배아는 생성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5.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전자 치료는 치료의 대상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에서도 의사는 환자 본인 내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후세대의 경우 동의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이 어렵다. 특히 대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후세대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후세대를 위한 대리인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후세대를 대신해서 우리가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세대의 유전자 구조를 결정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 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도 정당하다.
- ③ 유전자 치료를 할 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④ 후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은 권장되어야 한다.
- ⑤ 후세대에 나타날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한다.

56.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진보와 수많은 업적은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실험에 쓰인 동물 생명의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을 : 인간 생체 실험은 유용한 의학적인 지식을 낳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실험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 동물 생명을 침해하는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 ② 갑 :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 ③ 을 :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④ 을 :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다면 동물 실험은 정당하다.
- ⑤ 갑과 을 :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고통을 가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5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인간을 위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보 기>

ㄱ. 동물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ㄴ.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ㄷ. 인간은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킬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ㄹ. 인간의 품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5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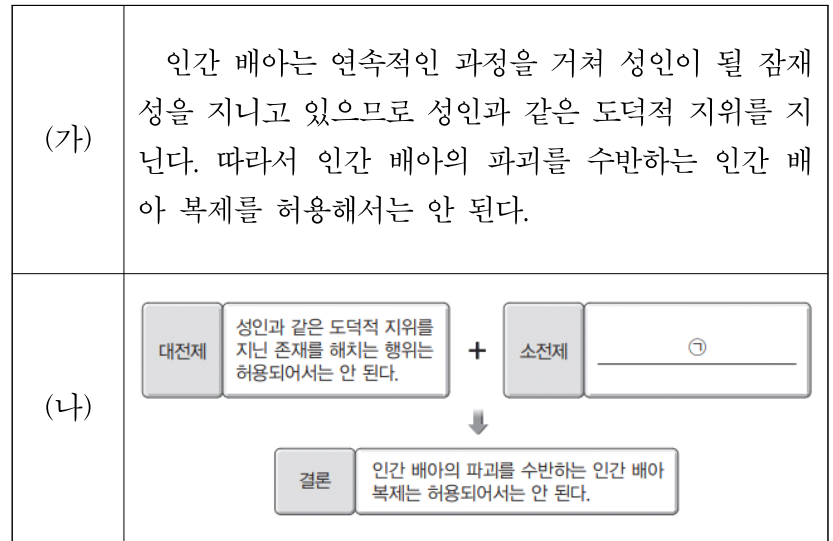
- ①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언어적 행위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9.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명 윤리는 윤리가 함축하고 있는 궁극적인 존엄성의 가치를 인간의 생명에서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인간 중심 윤리의 확대 내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인간이 없는 세계에서 윤리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윤리적 물음에 관한 한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등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떨 수도 없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갈수록 심해지고, 과학 기술의 확대로 인간 존재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모든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라는 통찰에 이르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 ① 모든 생명체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 ②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들을 단순한 물질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③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 ④ 인간 생명을 상위에 두고 생명의 가치를 위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가?
- 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생태계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가?

60.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배아 복제는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인간 배아 복제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를 해치는 행위이다.
- ③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 배아는 성인이 될 잠재성을 지닌다.
- ④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므로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⑤ 인간 배아가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해도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 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61.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개체 복제란 단지 복제된 인간의 유전자가 핵 제공자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결코 그 개체성의 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복제된 인간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된 인간은 자신의 원본 인간과의 유전자형, 성, 외모의 동일함으로 인해 자신의 고유성 내지는 개성의 상실감을 맛보고 자아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 복제는 인간의 생식을 출생의 개념에서 제조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제된 인간은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아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제조는 그 생산품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비인간화를 놓을 것입니다.



- ① 복제된 인간은 유전적 독특성을 지니지 못할 수 있는가?
- ② 복제된 인간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가?
- ③ 복제된 인간과 원본 인간을 서로 다른 인격체로 간주할 수 있는가?
- ④ 인간 복제는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는가?
- ⑤ 복제된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 존재로서의 개체성이 없는 존재인가?

6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자신의 개인적 삶의 계획을 최선의 역량에 따라 추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윤리적 자유의 공간은 유전적으로 제약된 능력과 성향과 속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러나 바람직한 속성과 성향에 대한 우생학적 프로그래밍은 그것이 해당 인격체에게 일정한 삶의 계획을 강요하고, 어쨌거나 자신의 삶의 선택의 자유를 특별히 제약하는 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개선을 의도하는 우생학적 간섭은, 그것이 해당 인격체를 제3자의 의도에 고정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인격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일한 저자로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윤리적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전학적 강화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없다.

—<보 기>—

- ㄱ. 유전학적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므로 옳지 않다.
- ㄴ. 유전학적 강화와 관련한 담론을 통해 유전학적 강화에 대한 허용이 가능하다.
- ㄷ.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조작 대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 ㄹ. 부모가 유전적 개입을 통해 자녀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6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을 :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점은 오히려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할 윤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인 동물에게 함부로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갑 :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물 실험은 가능합니다. 물론 동물에게 무분별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지만, 인간의 질병이 주는 고통이 아주 크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 실험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동물 실험은 정당화됩니다.

을 :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은 동물이 동의하지 않는 고통을 주며, 동물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비슷한 실험과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 ② 동물에게 무분별한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삼가야 하는가?
- ③ 동의를 받지 않고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부적절한가?
- ④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지니는가?
- ⑤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해악이 크다면 그 실험은 부적절한가?

64.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한 사물이 그 사물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p> <p>을 :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이나 성, 또는 종(種)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동일한 강도와 지속성을 갖는 고통은 동일하게 나쁘며, 그것을 인간이 느끼는지 또는 동물이 느끼는지는 고통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p> |
| (나) | |

- ① A : 목적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됨을 간과한다.
- ② A :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③ B :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B :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도덕적 고려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B :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6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은 자기 억제적이며 도덕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 반면 동물은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갖지 않는다. 사람은 다른 존재에게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반면, 동물은 그렇지 않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자기 억제적이지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집단의 일원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아무리 단순한 형태라도 우리는 동물의 생명에 대해 분명 자연스러운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나 권리의 소유는 도덕적 지위를 전제로 하며, 대다수의 동물은 이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보 기>

ㄱ. 동물은 도덕규범의 고안 능력이 없으므로 도덕적 권리가 없다.
 ㄴ. 동물을 비롯한 생명체는 단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지닌다.
 ㄷ. 권리는 타 존재에 대해 도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부여된다.
 ㄹ. 인종 간에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차이가 없지만 생물종 간에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6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을 : 동물이건 인간이건 간에 삶의 주체는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녔고, 그 내재적 가치를 존중받을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공언하지만, 그렇게 편협한 견해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가? 인간만이 지적 능력이나 자율성 또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음에도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보 기>

ㄱ. 갑 :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는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ㄴ. 을 : 이성이 없다고 해서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ㄷ. 을 :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을 단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ㄹ. 갑과 을 : 도덕적 행위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6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이 하나의 기술인 것과 같이,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음악이나 예술, 건축 혹은 의학이나 공학기술 등과 같은 어떤 다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받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니다.

- ①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참된 이해에 바탕을 둔 능동적 활동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다.
- ④ 사랑의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가이다.
- 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랑의 최고 기술이다.

68.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은 단지 생물학적 성질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체성, 즉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전자가 성취, 욕구 충족, 생식, 쾌감 등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책임감, 수치감, 가치 감정, 인간 존엄성 등의 윤리적 영역과 관련된다. 이러한 두 차원은 한 구체적 인간에게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성행위는 남녀가 서로를 증여하는 헌신적인 영육(靈肉)의 표현이며, 상호 완성에 이르기 위한 행위가 된다. 인간의 성은 그 외양이 단순한 육체적 결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참모습은 인격적 만남이다.

—<보 기>—

- ㄱ. 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 ㄴ. 성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가치를 지닌다.
- ㄷ. 성에 생리적 측면의 가치 이상의 것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 ㄹ. 인간에게서 성의 생식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을 분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9.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성은 결혼 및 출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출산 또는 생식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다.

을 :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성적 쾌락 추구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악 금지의 원리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성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 성의 본질은 쾌락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데 있다.
- ② 갑 : 개인의 자발적 동의는 성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 ③ 을 : 성적 쾌락 추구에는 일정한 도덕적 제약이 따른다.
- ④ 을 : 생식적 가치의 추구만이 성행위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과 을 : 사랑이 동반된 성적 활동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7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정신적인 차이는 그들의 교육과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남녀 본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여성의 본성이 남성의 본성처럼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남녀의 성격과 능력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여성에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로 인해 세계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의 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거부함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은 지극히 심각하다.

- ① 남녀 간 지성의 차이는 본성적 차이에서 비롯되는가?
- ② 남성에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은가?
- ③ 양성평등은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④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선천적 차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가?

7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 판단에 전제된 인습이 서로 다르듯이, 여성이 도덕 영역을 구성하는 방식은 남성과 다르다. 정의의 도덕관에서 설명하는 남성의 도덕 발달은 평등과 상호성의 논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도덕 문제를 인간관계에서 배려와 책임의 문제로 구성하는 여성의 도덕 발달은 책임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변화하는 것과 직결된다.

—<보 기>—

- ㄱ. 여성의 윤리는 평등과 공정성을 목표로 한다.
- ㄴ.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특성은 상호 배타적이다.
- ㄷ.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동일하지 않다.
- ㄹ. 여성은 배려와 공감 등의 도덕적 특성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2. 다음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개인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성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이 추구하는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동시에 내포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에 따르면 가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보 기>—

- ㄱ.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 ㄷ. 성의 자기 결정권을 사용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ㄹ.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라도 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사람이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타인의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데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욕구의 대상으로 만든다면, 이때 그는 마치 물건을 처분하듯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고기구이로 허기를 채우듯이, 자기 자신을 단지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음식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① 성 상품화는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의 일부이다.
- ② 성 상품화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
- ③ 성 상품화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행위이므로 허용 가능하다.
- ④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을 타인의 경향성 만족을 위해 도구화하는 것이다.

74.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仁)이란 인간다움이다. 그러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친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의(義)란 모든 일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 없고, 몸을 닦으려고 생각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부모를 섬기려 생각하면 사람의 도리를 알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의 도리를 알려고 생각하면 하늘의 이치를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① 진정한 효의 실천은 천리(天理)와 무관하다.
- ② 인의(仁義)라는 것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원인이다.
- ③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兼愛]이 인의 시작이다.
- ④ 수기(修己)를 위해서는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⑤ 효를 행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근본이자 수신(修身)의 필수 조건이다.

7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배려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을 말한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책임은 상대방이 표현했거나 표현하지 않은 요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한다.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존경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지각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존경은 착취의 부재이며 자유의 기반 위에서만 존재한다. 네 번째 요소인 이해는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고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배려와 책임도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을 때에는 장님과 마찬가지로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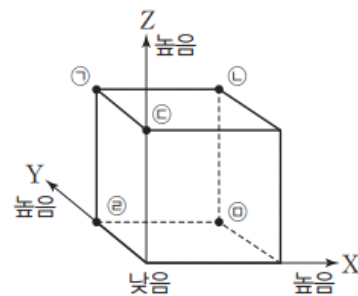
- ㄱ.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능동적 활동이다.
- ㄴ. 사랑의 요소인 배려, 책임, 존경, 이해는 상호 의존적이다.
- ㄷ. 사랑의 요소인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다.
- ㄹ. 사랑의 요소인 책임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일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76.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 사랑만이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인간의 성이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 인간의 성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된다. 혼인의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매춘과 다를 바 없다.

을 :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고, 출산에 기여하는 것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이다.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성은 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밀접히 관련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외의 성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 X: 사랑을 동반한 성적 자유를 강조하는 정도
- Y: 성이 지닌 가치에서 생식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Z: 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성을 결혼의 틀 안으로 한정할 것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77.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자의 비극이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욕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의 요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여자답다는 관념은 습관이나 유행에 따라 인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외부에서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요됩니다. 인간 사회에는 아무것도 자연적인 것이 없으며, 특히 여자는 문명에 의해 고안된 산물입니다. 여자의 운명에 타인의 간섭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간섭이 다른 방향을 취했다면 여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적 존재들을 서로 구별하는 모든 특이성보다도 무한히 중요합니다. 우월성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남녀는 자기들의 자유로부터 똑같은 영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짜 특권을 가지고 다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① 남녀의 성 역할을 전통과 관습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 ② 여성성은 여성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운명적 특성이다.
- ③ 남녀는 서로를 인간적 공통성을 지닌 동류로서 인정해야 한다.
- ④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 ⑤ 남녀가 각각의 성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7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배려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 같다. 대부분의 배려 이론가들은 여성에게 타고나거나 본질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가 소녀들은 사람들을 배려할 것으로 기대되고, 소년들은 너무나 자주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물론 배려 성향이 본질적으로 여성의 특성인지 아닌지는 미해결의 문제이지만, 도덕 교육자들의 희망은 양성이 배려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배려는 단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적인 삶을 위해 따로 마련된 존재 방식이 아니다.

<보 기>

- ㄱ. 배려 윤리의 실천은 구체적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유대를 통해 가능하다.
- ㄴ. 개인이 타인에게 배려를 실천하는 행위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 의무에 근거한다.
- ㄷ. 남녀가 모두 배려의 자세를 배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ㄹ.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배려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79.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행위는 자신의 몸에 대한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어 결혼이나 직업, 대인 관계에서 활용하는 것도 개인적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성의 자기 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성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다. 인간의 가치는 개인의 다양한 요소로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성을 상품화할 경우 인격의 상품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렇게 개인의 인격이 몸과 함께 도구로 전락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다.

- ① 갑 : 성 상품화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한다.
- ② 갑 : 성 상품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③ 을 : 성 상품화는 인간이 지닌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다.
- ④ 을 : 인간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인격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성을 상품으로 삼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80.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집안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먼저 아내에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이르고, 집안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본받아야 할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을 닦는 수기(修己)일 뿐입니다. 수기가 이미 지극해지면 안으로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용모가 정엄하게 되어 언어와 동작이 한결같이 예에 맞게 됩니다. ㉠ 사이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고(相敬如賓), 정숙한 몸가짐을 가진다면 왕후·비빈 역시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변화할 것입니다.

<보 기>

- ㄱ. 상호 간에 효도와 자애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ㄹ.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8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 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교리이다.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말고 달리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는가?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버린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조만간 선거나 지명이라는 공적인 방법을 통해 선택될 것이다.

- ① 기업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인가?
- ② 기업은 이윤 추구하고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가?
- ③ 기업인은 주주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④ 기업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매진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수행은 장기적인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가?

8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선비뿐입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이 때문에 일정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정말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가리는 것 없이 다 합니다. 죄를 짓게 밀어 넣은 뒤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진 사람이 군주로 있으면서 어떻게 백성을 그물질하겠습니까.

- ① 백성은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역할 분담을 없애야 한다.
-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④ 소인과 대인은 모두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전념해야 한다.
- ⑤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8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의(禮義)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 주고, 나이 많은 이와 적은 이의 차등이 있게 하고,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과 신분이 가볍고 무거운 사람에 따라 모두 어울리는 대우를 하는 것이다. ... (중략) ... 그들의 덕은 반드시 그들의 지위에 어울려야 하고, 그들의 지위는 반드시 그들이 받는 녹에 어울려야 하며, 그들의 녹은 반드시 그들의 쓰임에 어울려야 한다.

<보 기>

ㄱ. 예(禮)에 정통한 사람이 수장(首長)이 되어야 한다.
 ㄴ.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德)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ㄷ. 직업에 충실하면 선한 본성을 확충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
 ㄹ.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8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성에 대한 애정은 절약해서 쓰는 데 있다. 절약해서 쓰려면 검소해야 한다.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청렴해지고 청렴한 뒤라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생활이 목민하는 데 가장 힘써야 할 일이다. 청렴은 세상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 ① 목민관은 백성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목민관은 검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 ③ 목민관은 민생(民生) 문제 해결보다 백성의 교화에 힘써야 한다.
- ④ 목민관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⑤ 목민관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별도의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8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신은 각 사람에게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고 다양한 생활을 소명(召命)으로 주셨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순종하면 모든 일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을 :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 ① 갑 : 직업의 주된 목적은 생계유지와 부의 축적이다.
- ② 갑 : 현세의 직업적 성공은 내세의 종교적 구원을 보장한다.
- ③ 을 : 각자의 덕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을 : 사회적 직분에는 그에 맞는 도덕적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 ⑤ 갑과 을 : 구성원의 역할 분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

8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노동자에 대해 외면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노동을 하지 않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갖고, 노동을 할 때는 편안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즉 강제 노동이다. 따라서 노동은 노동 자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 이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 ① 사적 소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노동을 억압하는가?
- ② 노동 분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는가?
- ③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가?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가?
- 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경제적으로 예측될 수밖에 없는가?

8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가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보 기>

ㄱ. 사회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ㄴ. 수호 계층의 사람들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ㄷ. 사회적 역할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근거해 부여되어야 한다.
 ㄹ. 지혜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자 계층의 사람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8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 등을 이르는 말로,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품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시민적 품성은 호혜적 사회 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 내에서의 자발적 협력도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 내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 ②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제도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형성될 수 있다.
- ③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회적 자본은 상호 친밀한 집단 내에서의 협력적 행동만을 촉진한다.
- 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자율적 규제보다 법적 규제의 경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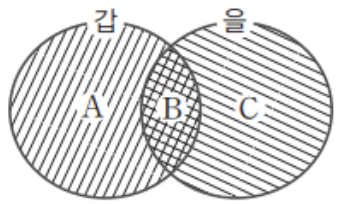
8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 마음을 쓰는 자는 다스리고, 몸을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이고,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는다.

을 : 신은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을 소명(召命)이라고 부르셨다.

- ① 갑 : 노력자(勞力者)는 노심자(勞心者)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 ② 갑 : 통치자는 백성에게 삶의 기반인 향산(恒産)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을 : 직업 노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 ④ 을 : 직업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차원에서만 종사해야 하는 의무이다.
- ⑤ 갑과 을 :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9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일어난다. 선왕(先王)의 예(禮)로써 분별하고 법도를 제정하여 사람들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맡겨야 한다.</p> <p>을 :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匠人)이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야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얹게 만드는 일이다. 대인(大人)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있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left;">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 ① A : 생산과 통치에 대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A : 다양한 직업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③ B : 통치자는 백성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통치해야 한다.
- ④ C : 예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직분을 나누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 ⑤ C : 출신에 얽매이지 말고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9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하락하고 청소년 자살률은 상승하는 등 사회에서 부정적 지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 상호 간 도덕적 책임의 부재, 험거워진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풀어 갈 열쇠도 사회적 자본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적 변화와 제도의 변화가 선행하고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뒤따른다고 생각해 왔지만, 100여 년의 역사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니 도덕적 협력과 연대의 문화가 선행하고 뒤이어서 정치·경제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 기>

- ㄱ. 사회적 자본은 도덕적 자원의 속성을 지닌다.
- ㄴ. 사회적 자본은 정치적·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형성된다.
- ㄷ. 사회적 자본은 공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 ㄹ. 동료애와 연대 의식이 강화되면 사회적 자본은 약화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9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기업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개된 자유 경쟁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주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은 자유 경제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을 : 기업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조직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도덕성을 갖추고 책임 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비즈니스 위험에 덜 노출될 것입니다.

갑 : 아닙니다. 자유 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을 : 그것은 기업의 소극적 책임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소극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 소외 지역 내 공장 설립 등 적극적 책임을 이행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효율성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 ①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② 기업은 주주가 아닌 외부인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하는가?
- ③ 기업은 사회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
- ④ 기업의 주주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9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함에 따라 노동의 소외가 심화된다.

<보 기>

ㄱ.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 정책을 통해 노동 소외를 해결할 수 있다.
 ㄴ.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자들의 노동 소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ㄷ.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의 확대는 노동자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에서 노동 소외는 극복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9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수호자가 세상의 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들과 더불어 나머지 사회 구성원 모두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군인 계층 중 자격이 없는 자가 통치자 계층으로 이행하려 든다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p> <p>을 : 수령은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 지성으로 잘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청렴(淸廉)하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이라고 욕할 것이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청렴은 선정(肅政)의 원천이자 덕행의 근본이다.</p> |
| (나) |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 기>

ㄱ. A : 공직자는 직무 수행을 위해 덕을 갖추어야 하는가?
 ㄴ. B : 통치와 방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ㄷ. B : 사회 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가?
 ㄹ. C : 공직자는 사욕(私慾)과 염치(廉恥)를 버리고 공직에 임해야 하는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9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하였는데 존귀함과 비천함, 어른과 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자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일을 맡겨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p> <p>을 :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김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각 개인에게는 신이 정한 생활 방식이 있다.</p> <p>병 : 공산 사회가 되면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그럴 때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p> |
| (나) |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 ① A와 C : 근면 성실한 직업 활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A와 F : 직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정당화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③ B와 D : 자신의 직업을 신이 정해 준 것으로 생각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와 E :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C와 E :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간과한다.

9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⓪ 문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을: 백성은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지닐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勞心]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勞力] 하여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⓫ 학생 답안

갑은 ㉠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하며, ㉡ 통치자는 좋은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을은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하며, ㉣ 통치자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통치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 기>—

ㄱ. 사회적 협력이 확대되어도 사회 분쟁은 불가피하다.
 ㄴ. 애국심은 사회 내에서 비도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ㄷ.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
 ㄹ. 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의를 당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은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하고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중략) ... 정의로운 것은 중간이자 동등한 것이며, 비례적인 것이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게 되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 ①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의 몫이 주어져야 하는가?
- ② 분배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 동등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③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분배 방식이 정의로운 것인가?
- ④ 동등하지 못한 사람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아야 하는가?
- ⑤ 자유로운 시민은 누구나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받아야 하는가?

99.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는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얻게 된 경우에만 정당하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 그런데 어떤 사상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이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 ②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 ③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정당한 분배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10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 (중략) ...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이러한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②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는 허용될 수 있다.
- ③ 분배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우연성을 제거해야 한다.
- ④ 지위와 직책에 대한 접근 기회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⑤ 사유 재산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1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질문에 옳게 대답한 것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 질문 | 대답 |
|---|---------------------------------------|-----|
| ① | 공동체의 맥락에 따른 정의의 기준이 필요한가? | 예 |
| ② |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가? | 예 |
| ③ |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가? | 예 |
| ④ | 사회적 가치는 각각 고유한 분배 영역을 가지는가? | 아니요 |
| ⑤ | 사회적 가치의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가? | 아니요 |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10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
을 : 형벌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범죄자가 노역으로 사회에 끼친 손해에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억제에 더 효과적이다.

—<보 기>—

ㄱ. 갑 :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ㄴ. 을 :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ㄷ. 을 :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한 존재이다.
 ㄹ. 갑과 을 :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적인 정의가 원칙과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평등)의 원리이다. ...**(중략)**...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生)과 사(死)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①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인가?
- ② 형벌의 최종 목적을 범죄 예방과 교화에 두어야 하는가?
- ③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가?
- ④ 범죄 자체의 해악 정도와 형벌의 정도는 비례해야 하는가?
- ⑤ 살인죄에 대해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104.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이 받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은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을은 ㉢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역차별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한편 갑은 을과 달리 ㉤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부당한 차별이 있는 사회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내재해 있는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을 : 우리 사회의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차별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갑 : 우대 정책이 역차별적인 성격은 있지만, 장애인과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가 채용과 승진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대한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현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①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우대해야 하는가?
- ② 사회적 차별을 철폐해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상은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 ④ 사회적 약자를 채용과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 ⑤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10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평등과 정의가 이기심의 상호 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억제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 (중략) ... 사회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까지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보 기>—

ㄱ. 개인이 지향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ㄴ.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ㄷ.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ㄹ.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비합리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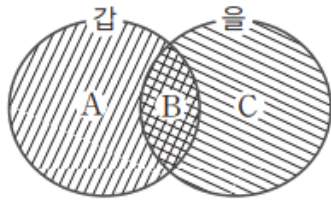
10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을 :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범죄자가 사형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노동으로 속죄하는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① 갑 :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분의 정당한 보복이다.
- ② 갑 :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 ③ 을 :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을 :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형벌이다.
- ⑤ 갑과 을 :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10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 모두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p> <p>을 :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p> |
| (나)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

- ① A :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 ② A : 상이한 공동체에는 상이한 분배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 ③ B :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④ C : 정의의 다양한 영역 간에는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
- ⑤ C : 사회의 이익이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분배 방식은 정당하다.

109. 갑, 을, 병 사상가들 중에서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국가의 보존과 범죄자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다. 살인을 저질러서 계약을 파기한 자는 스스로를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을 :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병 :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 <보 기> —

ㄱ. 살인범에게는 오직 사형의 형벌만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ㄴ. 형벌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는가?
 ㄷ.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ㄹ. 사형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10. 갑, 을, 병 사상가들에 대한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갑 : 분배 정의에서 옳음은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면 불평등이 생긴다.
을 :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병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에서 인간 각자는 진정으로 노동의 긍정적 모습에 따라 자아가 실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 질문 | 대답 | | |
|---|-------------------------------|-----|-----|-----|
| | | 갑 | 을 | 병 |
| ① | 공정한 절차를 따를 때 정의로운 분배가 성립되는가? | 예 | 아니요 | 예 |
| ② |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한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③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줄 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한가? | 아니요 | 예 | 예 |
| ④ |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가? | 아니요 | 예 | 아니요 |
| ⑤ | 국가가 사라진 사회에서 이상적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1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p> <p>을 :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p> |
| (나) | |

- ① A :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간과한다.
- ② A :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 형벌은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해 부과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B : 범죄자 처벌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⑤ B : 국가가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 계약을 파기한 자이다.

을 :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 ① 갑은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에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범죄자에게 위법의 이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국가의 보존과 살인자의 보존은 양립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형벌이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얻어야 한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을 :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 ① 갑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 ② 을은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복지 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본다.

1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왜 사람들은 꼭 이익만을 말할까? 오직 인의(義)가 있을 따름이다. 군주가 이익만을 생각하면 대부들은 자기 집안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고, 대부들이 자기 집안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일반 백성은 자기 한 몸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다.</p> <p>을 :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다.</p> |
| (나) |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 기>

- ㄱ. A : 덕이 있는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 ㄴ. A : 사회 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유지되는가?
- ㄷ. B : 통치자는 의로움보다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 ㄹ. C : 이상 국가에서는 철학자가 나라의 모든 일을 도맡아 수행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하면 백성이 따르기가 쉽다.

을 : 인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인간은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므로 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상벌의 주도권이 신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신하를 따르게 되므로 군주는 상벌을 주도해야 한다.

- ① 갑 :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 ② 갑 : 덕으로 어진 정치를 베푸는 것이 이상 정치이다.
- ③ 을 : 군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로 법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 군주는 백성이 본성을 교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1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욱 들끓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무위(無爲)하니 백성은 저절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된다.”

- ① 백성이 무지와 무욕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야 한다.
- ② 군주는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덕치를 시행해야 한다.
- ③ 자연의 도를 본받아 인위적인 다스림을 지양해야 한다.
- ④ 군주는 백성이 예를 바탕으로 본성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 ⑤ 하늘을 사회 규범의 근거로 삼아 통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1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좋음 중에서 최고의 good을 목표로 한다. ... (중략) ...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본성에 의해서 국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인 존재이다.

<보 기>

ㄱ.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ㄴ. 국가는 인간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이다.
 ㄷ.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 보장의 수단일 뿐이다.
 ㄹ. 국가는 인간이 형성하는 최초이자 최고의 공동체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사람들이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통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여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을 : 사람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분쟁을 겪게 된다. 국가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 ①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
- ② 갑 :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을 :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시민의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 ④ 을 :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에 참여한다.

1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얻는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두고, 각 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① 일반 의지는 사회 계약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가?
- ② 주권에 의해 파생된 권리는 주권과 동일한 것인가?
- ③ 주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소수가 독점할 수도 없는가?
- ④ 일반 의지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의 총합인가?
- ⑤ 주권은 계약으로 형성된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가?

1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을 : 우리는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 법의 준수가 오히려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ㄴ. 을 : 시민 불복종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정당화된다.
 ㄷ. 을 :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ㄹ. 갑과 을 : 다수결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2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양심적 행위이다.
- ② 헌법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최종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③ 시민 불복종에 따른 위법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 ④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즉각 시민 불복종을 해야 한다.
- ⑤ 민주 사회에서 공유된 정의관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12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고대 동양의 어떤 사상가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국가는 국민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국가의 정당성과 국민의 동의는 상호 관련이 없다
- ③ 국가가 부정의한 경우에도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 ④ 국가는 피치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국가는 국민에 의한 정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12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백성을 덕(德)으로써 인도하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덕으로써 정치하는 것은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못별이 그 둘레를 도는 것과 같다.</p> <p>을 :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한다면 불효한 자가 사라질 것이다. 부형이나 임금 보기를 그 자신 보듯 한다면 불효한 짓을 할 수가 없다.</p> |
| (나) | |

- ① A : 군주는 명분[分]이 아닌 이익[利]과 실리[實]를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 군주는 무조건적 사랑인 인(仁)에 따라 백성을 통치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A : 군주는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도덕적 수양을 할 필요는 없음을 간과한다.
- ④ B : 군주는 사욕을 이기고 자신의 역할에 걸맞은 덕을 갖추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 군주는 자국(自國)을 사랑하듯 타국(他國)을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함을 간과한다.

12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인(仁)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한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이다.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결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을 :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을 제시하여 모든 사람의 혼란을 구하고 천하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군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父子)가 서로 감싸 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보 기>

- ㄱ. 갑 : 군주는 이로움[利]을 따지기 전에 의로움[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ㄴ. 을 : 군주는 백성의 이기적 본성을 선하게 교화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 ㄷ. 을 :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법(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 군주는 자신을 수양하여 인의(仁義)의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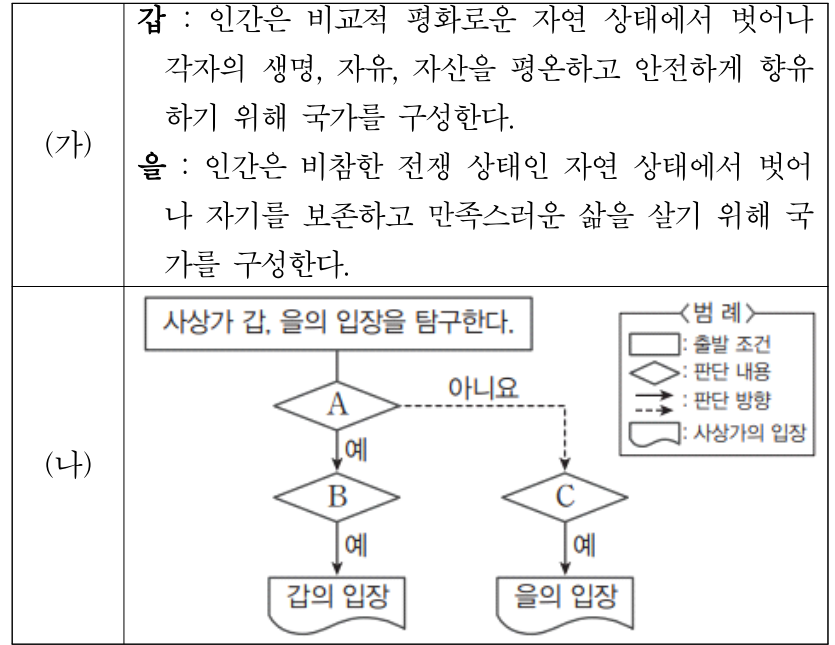
12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을 :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세속적인 명예를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한편,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질서 잡히게 할 때만 이 올바름 [正義]이 가능해진다.

- ① 갑은 국가가 자연적 결사체의 최후 형태로서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라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정의로운 국가에서 정치권력과 철학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12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 입법부가 국가의 최고 통치 권력을 지니는가?
- ㄴ. A :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려운가?
- ㄷ. B : 계약 당사자는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가?
- ㄹ. C : 국가 권력은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독점하는 절대적 권한인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2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자연권을 타고난다.
- ② 갑 :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권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③ 을 : 일반 의지는 양도될 수도 없고 위임될 수도 없다.
- ④ 을 :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 ⑤ 갑과 을 : 공통의 권력이 부재할 때에도 자연법의 위반은 가능하다.

128.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p> <p>을 :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p> |
| (나) | |

- ① A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기여한다.
- ② A :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③ B :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 ④ C : 부정의한 정치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 ⑤ C : 시민 불복종은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하는 행위이다.

129. 갑, 을 사상가들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서, 그 행위가 산출할 사회적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을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대체로 정의의 원칙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 ① 부정의한 모든 법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②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민 불복종이 시행될 수 있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관계없이 행해져야 하는가?
- ④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다수의 정의관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는 사회적 유용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3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행동과 성격 때문에 무언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히는 것, 거짓으로 또는 표리부동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불공정하게 또는 관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서 이득을 얻는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은 도덕적 비난,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징벌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기질도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 기>—

- ㄱ.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줄 때에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 ㄴ.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모든 행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 ㄷ.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기질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동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과학 기술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힘을 최대한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

을 :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례없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준 성과와 복지는 인정하되, 과학 기술의 윤리적·과학적 위험을 고찰하여 과학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① 갑 : 과학 기술에 대한 인간의 의존을 없애야 한다.
- ② 갑 :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③ 을 : 과학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④ 을 : 과학 기술은 인류에게 이익이 아닌 위협만 주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132.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재화를 대량 생산하여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은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에만 주목하면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 기술이 ㉠은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과학 기술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보 기>

- ㉠. 동물을 인간의 도구로만 보는 사고방식을 낳을 수 있다
-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촉진해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 ㉢.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여 생태계의 온전성을 파괴하게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3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다.

- ① 인간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② 인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③ 자연을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 ④ 자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⑤ 과학의 목적을 진리 탐구를 활용하여 삶을 개선하는 데 두어야 한다.

13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이다.

- ① 기술은 수단에 불과하므로 기술에 대한 지도는 불필요한가?
- ② 기술의 사회적 효과는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가?
- ③ 기술 그 자체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것인가?
- ④ 기술 그 자체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 ⑤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인간 사회에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135.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학 기술이 보편타당성을 갖춘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관찰과 실험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연구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 정치인, 기업가 등의 다양한 사회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개인의 가치관, 정치적 목적,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등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 ①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과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 ② 과학적 진리를 발견할 때는 연구자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과학 연구 대상을 선택할 때는 어떤 사회적 가치도 개입될 수 없다.
- ④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의 목적은 연구 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자기 연구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13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보 기>

- ㄱ. 기술이 인류에게 해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 ㄴ. 기술 그 자체는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ㄷ.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ㄹ. 기술을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37.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지만, 연구 결과의 활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연구 결과의 잘못된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를 활용한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과학자에게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뿐이다.

을 :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치가나 기업가뿐만 아니라 과학자도 자기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학의 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발전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이며, 과학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①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과학자의 위·변조 행위는 잘못된가?
- ② 과학자의 연구 행위는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③ 과학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 불가능한가?
- ④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⑤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람들은 연구 결과의 외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13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보 기>—

- ㄱ.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해 윤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가?
- ㄴ.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반비례하는가?
- ㄷ.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서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ㄹ. 새로운 윤리학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과학자는 순수한 학문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진리 발견의 책임만을 지닌다. 과학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예를 들어 DDT 살충제 발명가는 그것의 개발과 연구 과정에 대한 내적 책임을 지지만, DDT 살충제의 이용 방법과 제한 범위 결정에 대한 외적 책임은 기업가나 정치인이 져야 한다.

을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과학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DDT 살충제 발명가는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과 DDT 살충제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관련한 외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

<보 기>

ㄱ. 갑 : 과학자의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ㄴ. 갑 :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가 아닌 활용한 사람이 져야 한다.

ㄷ. 을 : 연구 결과를 산출하는 실험 과정에서는 과학자의 가치 중립적 검증이 필요하다.

ㄹ. 갑과 을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0.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벤살렘 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종의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인 실로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직분으로 세분화된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장치를 사용해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파악된 인과적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장치를 만들어 내지요. 벤살렘 섬의 원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조직적 연구를 후원함으로써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인공물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가 주도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객관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②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 지식은 사회적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다.
- ③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복지 증진이 아닌 진리 추구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인간이 과학 기술을 개발할 때 자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자연을 수단으로 삼아 인간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14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 기술을 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② 갑 : 기술 개발의 전 과정에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을 :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④ 을 : 기술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이익의 증진 여부와 무관해야만 한다.
- ⑤ 갑과 을 :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14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은 이제까지 지식의 역할을 위해 요구되어 왔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아주 절박한 의무가 된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 행위의 인과적 규모에 일치하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예견적 지식은 인간 행위에 권력을 부여하는 기술적 지식에 뒤처진다는 사실 그 자체는 윤리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예견적 지식의 힘과 행위의 권력 사이의 간격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만들어 낸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중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마디로 말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 ① 기술 발전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② 기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비이성적 존재도 책임의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
- ③ 새로운 윤리는 인간 행위가 미래에 미칠 전반적 결과에 대한 예측을 요구한다.
- ④ 인간의 예견적 지식을 넘어서는 윤리 문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만으로 해결된다.
- 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 문제는 인간 중심의 전통 윤리학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14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인가? 혹은 어떻게 인간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오직 유일한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p> <p>을 :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p> |
| (나) |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 기>

| |
|---|
| <p>ㄱ. A : 기술의 사회적 활용 이전에 반성적 검토의 과정이 필요한가?</p> <p>ㄴ. B : 기술 그 자체가 지향하는 특정한 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p> <p>ㄷ. B : 기술 그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가?</p> <p>ㄹ. C : 기술을 인간의 의지에 종속된 가치 중립적 도구로 간주해야 하는가?</p>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표현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발달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 우리가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보 기>

| |
|--|
| <p>ㄱ. 기술의 사회적 적용 단계에서는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하는가?</p> <p>ㄴ. 기술의 본질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한정해야 하는가?</p> <p>ㄷ. 기술의 활용에 수반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검토가 필요한가?</p> <p>ㄹ. 기술이 자연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가 규정되는가?</p>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4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기술의 편리성 뒤에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합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다양한 영역에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을 : 동의합니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기술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 :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술 개발의 속도를 저하시키고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합니다. 기술 영향 평가에는 숙련된 전문가만 참여해야 합니다.

을 : 기술 개발은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기술 개발 전 과정에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공의 책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①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② 기술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되는가?
- ③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가?
- ④ 신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⑤ 기술 영향 평가는 기술의 사회 적용 이전인 기술 개발 직후에만 실시되어야 하는가?

146.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제 인간의 책임은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권력이 자신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전통적 지배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중을 두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양태의 권력과 이러한 권력을 창출하는 양식을 규제할 규범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근대 어느 사상가는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확실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사물로부터 개념과 공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 사상가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③ 인류 복지를 위한 과학 기술의 사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④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자연과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다

147. 다음 입장을 지닌 사람이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도용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자신의 정보가 국가 기관, 기업, 타인 등에게 이용되는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① 정보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은 무용하다.
- ② 개인 정보 유출을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 ③ 개인은 자기 정보의 공개 범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기업은 공공 기관과 달리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148.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작물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 낸 창작자의 소유물이다.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노력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해 더 많은 지적 산물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공공재이며, 저작물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지적 산물의 생산이 촉진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 기>

- ㉠. 지적 산물 생산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저작물은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함
- ㉢. 지적 산물에 대한 독점권을 존중해야 정보 생산이 촉진됨
- ㉣.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의 노력에 알맞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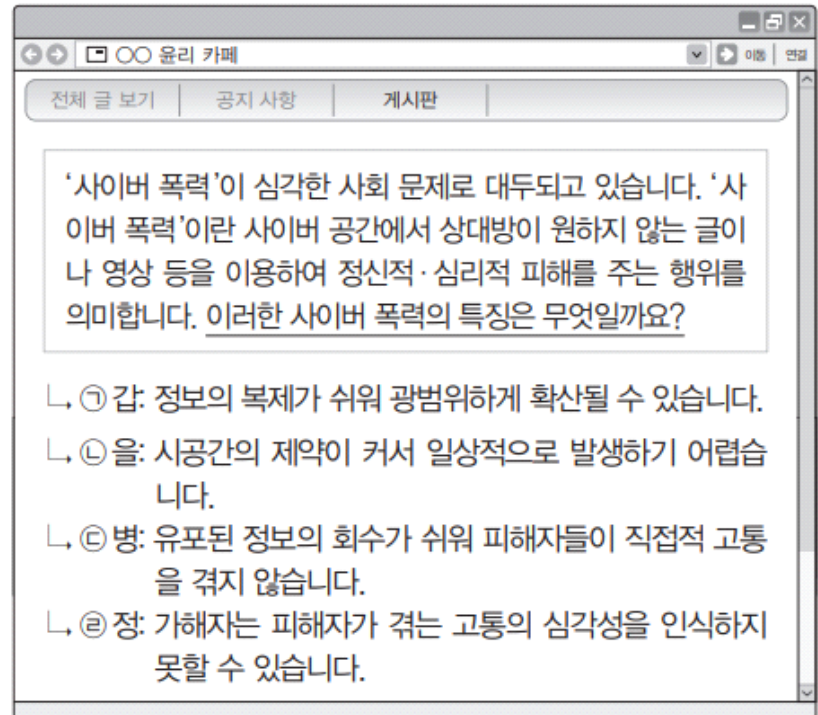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49.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사생활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성명권,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초상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갖는 저작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공통적으로 ㉠을(를) 추구한다.

- ① 공동체의 전통에 따른 개인의 역할 계승
- ② 개인의 존엄성과 사적 권리에 대한 보호
- ③ 사적 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이익 창출
- ④ 개인 정보와 관련한 시민의 알 권리 최대 충족
- ⑤ 누구에게나 차별과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 보장

150.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을 ㉠~㉣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51.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사례>
고등학생 A는 친구들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을 재미 삼아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려도 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행위와 일치해야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②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③ 사회의 유용성을 증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④ 실천 이성이 부과한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자율적 행위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 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즐거움을 주어야 도덕적 행위가 됨을 명심하세요.

152.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을
- ② 갑, 정
- ③ 병, 정
- ④ 갑, 을, 병
- ⑤ 을, 병, 정

153. 다음은 가상 인터뷰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문가 : A는 정보 사회에서 매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자 : A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유포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A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자 : A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 ㉠ 이 있습니다.

—<보 기>—

ㄱ.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는 가공 능력
 ㄴ. 정보를 명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읽기와 쓰기 능력
 ㄷ. 여러 매체의 정보 비교를 위한 비판적인 분석 능력
 ㄹ.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진위 판단 없이 수용하는 포용능력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54.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의 특징

1. 의미: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
 2. 특징
 ① 송수신자 사이에 쌍방 정보 교환이 가능함
 ②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함
 ③ 정보를 발견하는 동시에 취합, 공개가 가능함
 3. 문제점: ㉠

—<보 기>—

ㄱ. 정보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ㄴ. 정보 전달 경로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됨
 ㄷ. 정보를 교환할 때 사적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ㄹ.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신자 간의 상호 의견 전달이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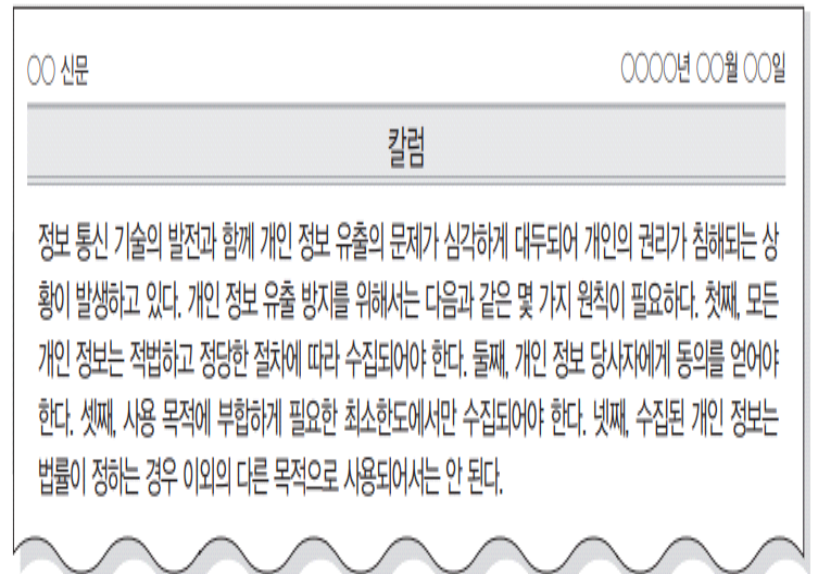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55.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 온라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② 갑 : 자유로운 쌍방향의 의사소통은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을 : 정보 기술이 발전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판단은 잘못이다.
- ④ 을 : 정보 기술을 독점한 사람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 정보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 정치력 향상은 상호 무관하다.

15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② 누구든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제도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③ 정보 수집 목적에 어긋나는 개인 정보의 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 ④ 정보 수집의 주체는 개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사적 권리 침해임을 알아야 한다.

157. (가)의 갑,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정보 생산 욕구를 고취하여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정보 생산에 대한 성과의 독점권을 존중해야 막강한 정보 개발 유인이 창출되어 정보의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p> <p>을 : 정보는 생산 활동의 원천이자 공공재이다. 누구나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정보 생산이 촉진된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p> |
| (나) | |

<보 기>

- ㄱ. A : 정보는 개인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산출한 사적 자산을 간과한다.
- ㄴ. A : 정보에 대한 재산권 존중 없이 정보 창작 촉진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 ㄷ. B : 정보는 인류가 함께 생산하는 공공재로 간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ㄹ. B : 정보의 발전은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5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사회의 새로운 권력자들은 뉴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 뉴 미디어가 대중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고, 개인의 정보 접근성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은밀하게 제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뉴 미디어의 속성은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뉴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뉴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참정권 행사가 증대됨을 간과한다
- ② 뉴 미디어는 개인의 능동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을 간과한다
- ③ 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객관성 점검은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뉴 미디어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뉴 미디어는 대중을 조종해 민주 가치 실현을 방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5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어떤 창작자의 저작을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노력을 무시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을 : 동의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명기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거친 후 상당한 경제적 보상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갑 :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창작자의 동의, 출처 명기와 같은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까지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여 양질의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을 :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야 창작 의욕이 높아져 양질의 저작물 생산이 촉진될 것입니다.

- ①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 ③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은 제재받아야 하는가?
- ④ 새로운 창작이 활성화되면 양질의 저작물 생산이 촉진될 수 있는가?
- ⑤ 저작물을 생산한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

160.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로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포함하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룹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 표현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 사기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표현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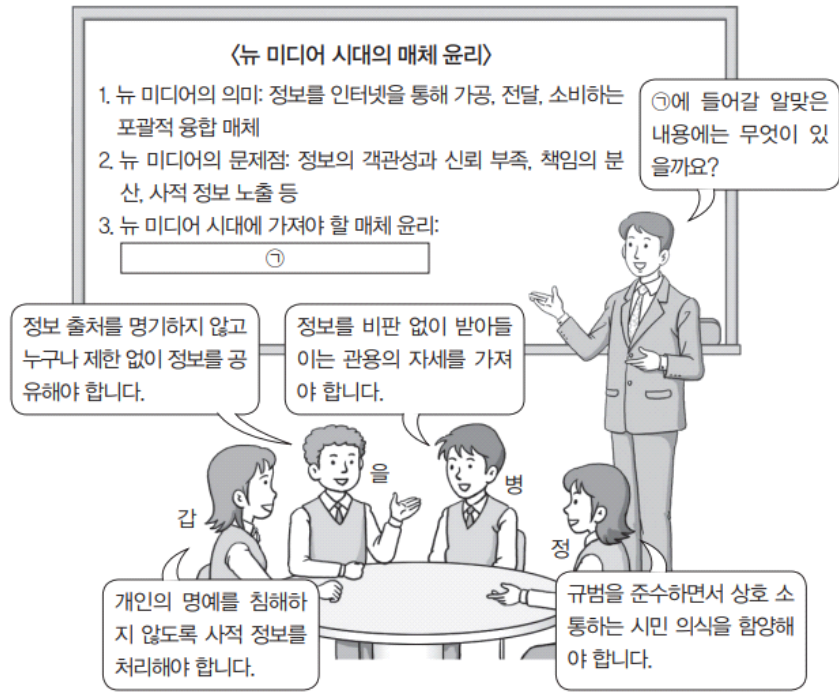


—<보 기>—

- 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 ㄴ. 타인에게 해를 주는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 ㄷ.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성숙에 이바지한다.
- ㄹ. 표현의 자유는 내용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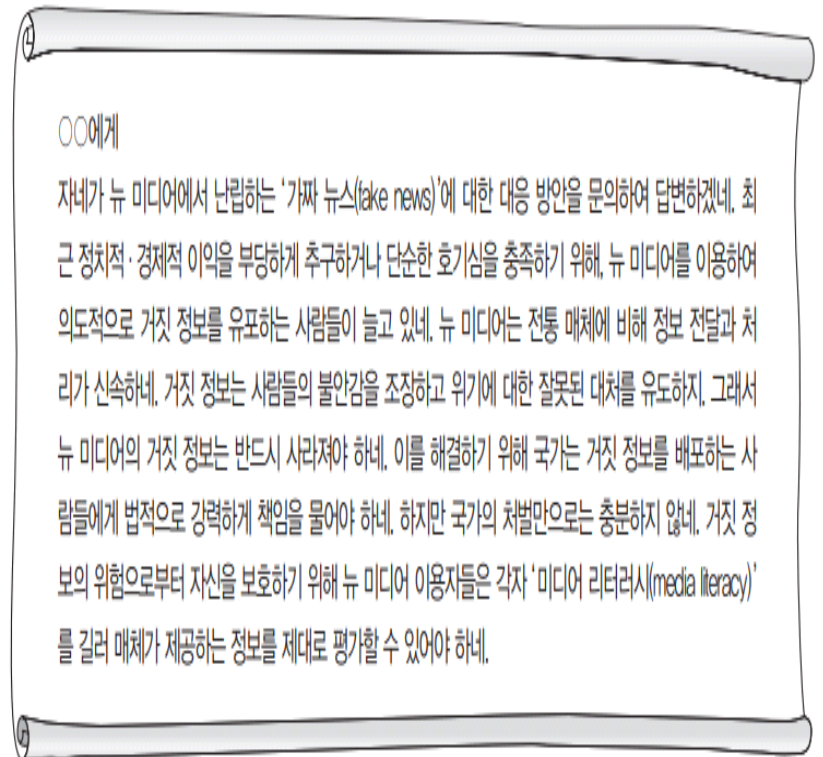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61.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병
- ② 갑, 정
- ③ 을, 정
- ④ 갑, 을, 병
- ⑤ 을, 병, 정

162.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뉴 미디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개인은 정보 진위의 판단을 위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 ③ 전통 매체의 정보 전달 속도는 뉴 미디어의 정보 전달 속도보다 빠르다.
- ④ 거짓 정보의 폐해 극복을 위해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 ⑤ 거짓 정보에 대한 뉴 미디어의 자체적 선별 능력을 무한 신뢰해야 한다.

16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식으로 이용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른다고 볼 수 없다.

을 : 식물의 선은 영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물의 선은 이것 이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인간의 선은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식물의 선과 동물의 선은 인간의 선을 위해 사용된다.

- ① 갑 :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신의 뜻에 따라 운명 지어져 있다.
- ② 갑 : 동물에 대한 동정심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③ 을 :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본래부터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 ④ 을 :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목적 없이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며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16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적 차이를 근거로 인간이 동물을 비도덕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왜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고 감수 능력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이다.

—<보 기>—

- ㄱ. 모든 유정적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 ㄴ. 모든 동식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ㄷ. 이성의 유무는 동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 ㄹ.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6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물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어 점차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동물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적 행위 주체인가?
- ② 동물은 식물과 달리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 ③ 동물 그 자체를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의 도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가?
- ⑤ 동물에 대한 폭력의 정당성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 여부로 결정되는가?

166.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갖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이다. 인간이 자연에 관해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내가 볼 때 이 주장은 ㉠

<보 기>

- ㄱ. 자연 훼손은 곧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ㄷ. 자연을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님을 간과한다.
- ㄹ.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연(因緣)으로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6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는 우리가 삶의 주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 ① 삶의 주체 중 일부는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가진다.
- ②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삶의 주체인 동물은 감정적 생활을 하고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 ④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선택이 아닌 당위이다.
- ⑤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인간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16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그들 자체의 생존, 건강, 안녕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

- ① 모든 유기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 ② 개별 유기체의 자유에 대한 불간섭을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
- ④ 인간을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⑤ 생태계의 온전성에 기여할 때만 개별 유기체의 희생이 정당화된다.

16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생물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생명 공동체의 안정은 그 통합성에 의존한다면 그들에게는 존속할 자격이 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보전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종(種)이나 군(群)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 전체에도 부여되는 특성이다.

—<보 기>—

- ㄱ. 생명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ㄷ. 인간이 생태계를 경제적으로 이용해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ㄹ. 개별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이지 않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70.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이다.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나) 도(道)는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다. 세상에는 큰 것들이 있는데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을 본받는다.

—<보 기>—

- ㄱ. (가) :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간주해야 한다.
- ㄴ. (가) :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며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해야 한다.
- ㄷ. (나) : 자연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性]의 근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 ㄹ. (가)와 (나) : 자연을 인간과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모든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들에 대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자들에 대해 의무를 가질 수 없다.</p> <p>을 : 인간의 식생활, 동물 사육 방식, 동물 실험 절차, 야생 생물의 사냥과 함정, 모피 등과 관련하여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꽤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태도가 변한다면 고통의 양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p> |
| (나) | |

<보 기>

- ㄱ. A :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는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함을 간과한다.
- ㄴ. A : 목적 그 자체인 존재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ㄷ. B : 모든 유정적 존재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ㄹ. B : 동물에 대한 의무의 근거와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동일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7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식용 송아지의 운명을 보고 우리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고통이나 박탈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혼동한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관행 자체이다.
- 다른 사람에 대한 유용성과는 논리적,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유용성을 지닌다면, 이들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그들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① 삶의 주체 중 일부만이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지는가?
- ② 도덕 원리 수립의 능력을 결여한 존재도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 ③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④ 동식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의무인가?
- ⑤ 동물의 도덕적 권리는 내재적 가치의 소유와 무관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잘못인가?

17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흙, 물, 동식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안정된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존재의 삶을 위한 자원이 되며, 사용된 후에는 다시 생명 공동체로 돌아가 재순환된다.
- 대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으로써 이용하게 될 것이다. 대지가 공동체라는 것은 생태학의 기초 개념이지만, 대지가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을 포괄하는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① 생태계의 안정 유지보다 개별 생명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생태계 그 자체의 가치는 인간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 ③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유일한 관리자로서 대지를 온전하게 다스려야 한다.
- ④ 자연물을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⑤ 대지의 온전성 보존에 대한 기여 여부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17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목적 지향적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존재들은 모두 자기의 고유한 선을 지닌다.
- 무생물은 그들 고유의 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대우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반면에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자신의 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보 기>—

- ㄱ. 지각과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목적을 추구해야만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 ㄴ. 생명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개별 유기체보다 우선하는 고유의 선을 가진다.
- ㄷ.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 ㄹ. 생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의무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7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동물에게는 거리낌 없이 고통을 가하면서, 인간에게는 유사한 고통을 가하려 하지 않는 인간은 종(種) 차별주의자들이다.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쁘며, 고통받는 존재의 인종, 성, 종과 무관하게 고통은 억제되어야 한다.</p> <p>을 : 대지 윤리는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을 포괄하는 대지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p> <p>병 :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만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 즉 인격이라고 부른다. 어떤 존재가 이성이 없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니므로 사물 또는 물건이라고 부른다.</p> |
| (나) | <p>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법 레>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p> |

<보 기>

ㄱ. A : 채고 감수 능력의 유무가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가?
 ㄴ. B :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있는가?
 ㄷ. C :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ㄹ. D : 비이성적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므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7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도 없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그것을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서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여며, 무명이 멀하기 때문에 행이 멀하고 나아가서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멀한다.

- ① (가) : 자연 만물을 인위적으로 분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② (가) :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본성[仁]을 회복해야 한다.
- ③ (나) : 자연 만물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④ (나) : 자연 만물은 원인[因]과 조건[緣]으로 상호 연결됨을 알아야 한다.
- ⑤ (가)와 (나) : 자연 만물을 인간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17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p> <p>을 :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큰 자아실현',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관점을 지녀야 한다.</p> |
| (나) | |

<보 기>

ㄱ. A : 어떤 개체가 도덕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녀야 한다.

ㄴ. B :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동물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ㄷ. B :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인간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부여해야 한다.

ㄹ. C :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 그 자체는 수단적인 가치만을 지닌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17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지키려는 국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국가는 개발과 균형의 조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활동에 동참하여,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별 국가가 국제 협력을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국내법과 개인의 친환경적 생활 태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환경 개발 중 양자택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하는 범위의 환경 개발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개인의 친환경적 소비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각국의 환경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별 국가는 국제 환경 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간과한다

17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가 이제까지 실행한 것과 앞으로 실행할 것에 의해 마땅히 실존해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의 가능성과 초월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우주적 책임으로서 이 가능성의 보존은 바로 실존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인류의 실존은 간단하게 인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존재한다.'는 적나라한 존재적인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 ① 인류 전체는 세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도덕 공동체이다.
- ② 인류의 존속에 대한 요청은 미래 세대 삶의 질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 ③ 현세대는 동료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물의 선도 탐구해야 한다.
- ④ 자연을 인간의 기술적 행위에 종속된 물질적 자원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⑤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은 마땅한 당위가 아니라 조건부적 의무이다.

180.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는 상당 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유발된 것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상 기후가 더욱 증가할 것은 분명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속화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의 피해는 기후 변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논리의 방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약소국에 실질적 효력을 미치지 어렵다. 따라서 기후 부정을 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나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어린이,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시장 경제 논리를 환경 문제에 도입해야만 기후 위기가 해소된다.
- ②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유보해야 한다.
- ③ 기후 부정의 시정을 위해 개발 도상국이 주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위한 국제적 배려는 기후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⑤ 기후 변화는 주기에 따른 자연 현상이므로 인위적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1.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만물이 흩어져 예제(禮制)가 행해진다. 흘러 쉬지 않고 합하여 갈아져 악(樂)이 일어난다. 봄에 솟아나 여름에 자라는 것은 인(仁)이요, 가을에 거둬들여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의(義)이다. 인은 악에 가깝고 의는 예에 가깝다. 악은 조화를 두텁게 하니 하늘을 따른다. 예는 마땅함을 구별하니 땅을 따른다. 따라서 성인은 하늘에 응하여 악을 만들었고, 땅에 맞추어 예를 제정하였다. 예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다.

- ① 예와 악은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행위를 자각하게 한다.
- ② 악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질서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 ③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적 체험은 사회 규범에 어긋난다.
- ④ 예와 악은 천지의 질서에서 연원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⑤ 예와 악은 사람을 도야시키며 사회를 질서 있고 안정되게 한다.

18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모방적 성격의 시를 추방한 것은 합당했습니다. 철학과 시 사이에는 오래된 불화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향해 짚어대는 개', '어리석은 자들의 실없는 이야기', '지나치게 똑똑한 자들의 무리', '시시콜콜 따지며 생각하는 자' 같은 표현이 철학과 시의 오랜 대립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쾌락을 좇는 시와 모방이 훌륭하게 통제되는 나라에 그러한 시가 있어야만 하는 논거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반갑게 맞아들일 것입니다.



- ① 도덕을 기준으로 한 예술의 검열은 불가피하다.
- ② 정화된 시는 영혼에 우아함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 ③ 모든 시가 인간의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④ 선의 이데아를 지향하게 하는 예술이 존재 가치가 있다.
- ⑤ 선악 모두를 모방한 예술로 도덕과 예술의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

18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방자로서 시인은 다음의 세 가지 국면 중 어떤 것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과거나 현재에 처하고 있는 사물의 상태를 모방하거나, 둘째, 사물이 과거나 현재에 처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생각되는 상태를 모방하거나, 셋째, 사물이 마땅히 처해야 할 상태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다.
- 예술가는 모델보다 더 나은 것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비극은 보통 이상의 인간의 모방이므로 우리는 훌륭한 초상화가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초상화가들은 실물의 고유한 형상을 재현함에 있어 사물과 유사하게 그리는 동시에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그린다.

- ① 모방은 자연의 모사나 사실적 복제에 제한되어야 한다.
- ② 모방에서 사물의 상태가 지향하는 방향은 배제해야 한다.
- ③ 모방은 사물을 더욱 아름답고 탁월하게 변형시키는 것이다.
- ④ 모방자로서 시인은 개연성과 가능성의 한계 밖에서 창작해야 한다.
- ⑤ 모방은 사물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사물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18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은 정직함도 위험할진대, 많은 정직함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다. 진정한 비평가라면 미의 원리에 헌신한다는 점에서는 늘 정직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시대와 모든 유파에서 미를 찾으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정해진 관습에 따라 사고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한계를 짓지 않는다. 비평가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둘을 혼동할 때 다시 혼란이 찾아온다.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표현에 진실해야 한다.
- ② 예술적 미와 도덕적 선은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 ③ 예술 작품에 정직함을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④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당위성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예술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의 구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18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폭력 대신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 ① 진정한 예술은 도덕적 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 ② 예술은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④ 진정한 예술은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공유를 촉진한다.
- ⑤ 진정한 예술은 공감을 통해 사람들과 결합하게 한다.

18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한다. ... (중략) ...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 보 기 > —

ㄱ. 인간 존재만이 미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ㄴ. 개인의 미적 판단은 타인과 공유될 수 있다.
 ㄷ. 인간은 도덕적으로 순수한 선만을 의욕한다.
 ㄹ. 개인의 주관성은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8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문화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고 있다. 영화와 라디오와 잡지는 개개 분야에서나 전체적으로나 획일화된 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독점하에서 대중문화는 모두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점에 의해 만들어지는 골격과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가 단순히 장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아예 한술 더 떠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쓰레기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된다. 대형 기획사들 스스로 자신을 산업이라 부르며, 그들의 수입이 공개되면 그로써 그들의 생산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제거된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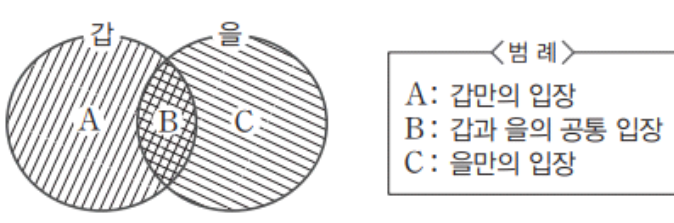
- ① 문화 산업은 대량 생산을 통해 독점을 철저히 은폐한다.
- ②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예술성에 의해 유용성이 판단된다.
- ③ 문화 산업은 사물화된 의식을 조장하고 대중을 무력화한다.
- ④ 문화 산업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 독창적 생산을 보장한다.
- ⑤ 문화 산업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투영한 독창적 창작물을 생산한다.

18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흙을 굽어모아 악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만약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북을 치고 금(琴)과 슬(瑟)을 뜯고 우(竽)와 생(笙)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임금과 대신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관리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창고나 나라 곳간은 부실해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부인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려 한다면 천과 비단은 많아지지 않는다.

- ① 음악은 생산성 증대와 도덕성 회복에 이롭다.
- ② 낭비를 줄여 분별적 사랑[別愛]을 실현해야 한다.
- ③ 도덕은 검소함에서 비롯되며 음악은 낭비일 뿐이다.
- ④ 생산 자원을 음악에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⑤ 음악은 사람들을 즐겁게도 못하고 일에 전념하지도 못하게 한다.

18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음악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인정(人情)으로서는 절대로 떼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이 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것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옛 성왕은 이러한 혼란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래서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제정하여 그것을 바르게 인도한 것이다.</p> <p>을 : 음악이 번거로워지면 정치는 시원찮아진다.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을 없애는 일에 힘쓴다. 음악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p> |
| (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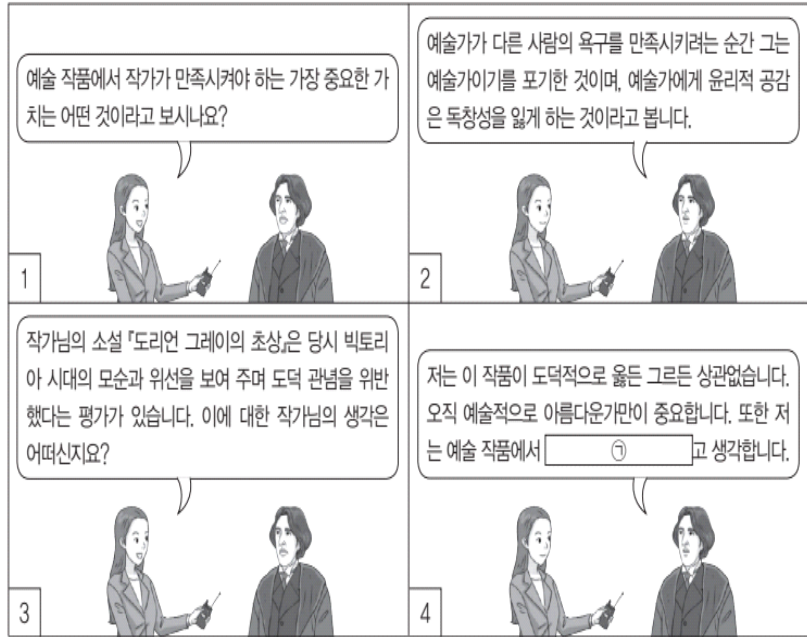
- ① A : 음악을 통해 인간은 감정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② A : 음악이 예에 부합하여 인간 사이의 질서를 바로잡게 해야 한다.
- ③ B : 음악은 물자의 낭비를 절약하여 절용(節用)을 실천하게 한다.
- ④ B : 음악을 통해 도덕의 구현이 아닌 예법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⑤ C : 음악은 평등한 사랑[兼愛]을 실현하여 생산성을 높이게 한다.

19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美)의 판단과 선(善)의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에서 동일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둘 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태도를 반영하고 있고,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을 연출하며, 타율적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 ① 도덕에 공헌하는 형식 내에서만 예술은 미적 가치를 지닌다.
- ② 미적 판단은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객관적 판단이어야만 한다.
- ③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도덕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 ④ 미적 판단은 감각 능력에 근거하므로 이성적 판단과 유사성이 없다.
- ⑤ 미와 선의 연관성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예술의 종속성을 의미한다.

191.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재의 도덕성과 표현의 심미성이 모두 중요하다
- ② 부도덕성을 묘사해도 도덕적 교훈을 준다면 의미 있다
- ③ 사회적 관습이 작품 비평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④ 미적 표현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므로 가치 있다
- ⑤ 미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벗어나 창작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19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인간은 본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존재이다. 육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시작된 사랑은 점차 영혼의 아름다움, 제도와 학문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움 그 자체, 즉 변치 않고 순수한 이데아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미의 관조는 단지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진리와 선의 세계로 상승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

• 우리는 어린이의 영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와 음악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신들이 거짓되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묘사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신이 서로 다투거나 인간보다 못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음악도 아무 음악이나 허용될 수 없으며, 리듬과 선율은 영혼에 질서를 부여하고 절제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예술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영혼을 바르게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내용을 선별하고 통제해야 한다.

- ① 예술이 덕을 고양한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 ② 예술에서 리듬과 조율이 영혼에 절제와 질서를 주어야 한다.
- ③ 예술의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의 이해를 촉진 시킬 수도 있다.
- ④ 예술을 통해 이데아가 아닌 현상의 아름다움을 모방해야 한다.
- ⑤ 예술이 감정을 자극하여 영혼과 이성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19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우리 눈에 보이는 구두나 침대는 단 하나의 진정한 존재, 즉 '구두 자체', '침대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다. 구두장이가 만든 구두나 목수가 만든 침대는 이 이데아를 흉내 낸 1차 모방물이다. 그런데 화가는 이 실물조차 만들지 않고 단지 걸모습을 그릴 뿐이다. 화가가 그리는 구두는 구두장이의 작품을 흉내 낸 것이며, 이로써 예술은 진리로부터 세 단계나 떨어진 모사(模寫)가 된다. 이러한 예술은 진리나 이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여 영혼을 타락시킨다. 그러므로 영혼을 타락시키는 시인이나 예술가들을 이상 국가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을 : 인간은 본래 모방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흉내를 내며 배우고, 그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 시는 단순한 현실 재현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재구성하여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다. 특히 비극은 두려움과 연민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감정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예술은 감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 행위이다.

- ① 갑 : 재모방을 거친 예술은 낮은 단계의 모방이며 진리와 거리가 멀어진다.
- ② 갑 : 모방은 이데아와 멀어지지만 영혼을 바르게 이끈다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을 : 모방은 현실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능동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④ 을 : 모방을 통한 예술은 감정을 정화하며 보편적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 ⑤ 갑과 을 : 모방은 오직 감정을 자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19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지 않는다. 대신 예술은 현실과의 비개념적 친화 속에서 감정과 고통을 표현하며, 현실이 외면하거나 억압한 것들을 드러낸다. 예술은 사회에 대한 저항력을 통해 자신을 살아 있게 만든다. 복제를 통해 전파되는 상업적 예술은 이러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며, 감각과 사유를 마비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그러나 자율적인 예술은 여전히 사회의 모순을 가시화하고, 감춰진 고통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비판이다.

- ① 예술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모방해야 한다.
- ② 예술은 현실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미를 반영해야 한다.
- ③ 예술은 사회적 질서를 재현하고 따르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상업적 이데올로기를 따름으로써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⑤ 예술은 현실의 모순을 표현함으로써 사회 비판의 기능을 해야 한다.

19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이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복제 기술은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에서 떼어 낸다. 복제 기술은 복제를 대량화함으로써 복제 대상이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대신 대량으로 나타나게 한다. 복제 기술은 수용자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개별적 상황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함으로써 그 복제품을 현재화한다. 복제 기술의 발달로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예술 생산에서 진품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로서 아우라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예술의 모든 사회적 기능도 변화를 겪게 된다. 그동안의 예술이 그것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가치인 아우라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제 예술은 다른 실천, 즉 정치에 바탕을 두게 된다. 그동안 숭배되고 찬양되던 예술은 이제 다 함께 논의하고 비평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소수만이 누리던 예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아우라 : 예술의 전통적 권위, 유일성, 진품성

- ① 복제 기술로 인해 원작의 유일성이 위축된다.
- ②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더욱 강화한다.
- ③ 복제 기술은 예술의 진품성과 고유성 확대에 기여한다.
- ④ 복제 기술은 예술을 소수의 감상자만이 누릴 수 있게 한다.
- ⑤ 복제 기술은 수용자의 비판 능력을 저해하여 기존 질서를 강화한다.

19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영화는 문화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술적으로 복제되고 기계적으로 제작된다. 그 속에서 개별적 예술 작품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모든 장면은 반복과 규격화된 형식을 따른다. 영화는 관객이 능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감정의 흐름마저도 통제된다. 관객은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며 자율적 판단이 아닌 수동적 수용에 익숙해진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계몽이 추구했던 이성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인간을 비판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만든다.

을 : 영화는 전통 예술의 아우라를 해체하며, 예술을 특정한 엘리트 계층이 아닌 대중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복제를 전제로 한 영화는 예술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으며, 몽타주 기법은 관객이 현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영화는 일상의 익숙함을 낯설게 만들고, 그 속에 숨겨진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영화는 대중의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고, 예술을 정치적인 힘으로 탈바꿈시킨다.

- ① 갑은 영화가 예술의 탈표준화와 대중의 정치화를 강화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영화가 예술의 고유한 존재감과 일회성을 촉진시킨다고 강조한다.
- ③ 갑은 영화가 예술의 상업성을, 을은 사회적 기능을 탈피하게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영화가 대중의 비판적 인식을 쇠퇴시키는 점에, 을은 환기하는 점에 주목한다.
- ⑤ 갑과 을은 영화를 통해 도구적 이성을 강화하고 사회 구조를 은폐시켜야 한다고 본다.

197. 갑, 을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과 자원 내에서 가격, 품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을: 가격이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환경, 환경 보호, 동물 복지, 공정 무역 여부 등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졸업 사진 촬영을 위한 옷을 구매하려 하는데,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저렴한 옷을 구매해 입고 고가에 되팔아 소득을 얻으세요.
- ② 값싼 대량 생산 의류를 구입하여 입은 뒤 바로 폐기하세요.
- ③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④ 활동성이 떨어져도 고급 브랜드의 한정판 의류를 선택하세요.
- ⑤ 모피 채취용으로 사육된 동물의 모피로 만든 옷을 선택하세요.

19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행은 한편으로 그것이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 준다. 유행은 한편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폐쇄성을 의미한다.

- ① 유행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특성을 지닌다.
- ② 유행은 자율적 창조 행위로 개인이 소속된 집단과는 독립적인 것이다.
- ③ 유행은 사회적 균등화와 개인적 차별화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독특한 형식이다.
- ④ 유행은 모방을 통해 사회적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차별화 욕구를 충족시킨다.
- ⑤ 유행을 따르는 자는 집단에 동화되며, 유행을 거부하는 자도 과시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199.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유교 사상의 특징과 유교 문화권 건축물의 특징

1.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자연과의 조화

유교 건축은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며, 건축물과 정원, 연못, 산세(山勢)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2. 예(禮)와 질서를 반영한 배치

유교 건축은 위계 구조에 따라 공간이 배치된다. 궁궐과 관청, 가정에서도 신분과 역할에 따라 건물의 위치와 기능이 다르게 배치되며, 주출입구, 정전(正殿), 사당(祠堂) 등의 공간은 엄격한 위계를 따른다.

3. 효(孝)와 충(忠)을 반영한 공간

유교 건축에서 조상을 기리는 종묘와 사당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며, 그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조사를 통한 결론 : ㉠

- ① 거주 공간의 건축은 세계관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 ② 거주 공간의 형식에 인간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
- ③ 거주 공간에도 사회적 질서와 역할 수행이 드러난다.
- ④ 거주 공간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건축으로 형상화한다.
- ⑤ 거주 공간 구성의 기반이 되는 사상은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20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기능적 사용이나 단순한 소유, 위세 과시로 설명되지 않는다. 소비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치이자, 기호가 서로 교환되고 재생산되는 언어 활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소비는 기호 체계 속에서 사회적 의미와 차별화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 ① 소비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표현한다.
- ② 소비는 상품의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선택일 뿐이다.
- ③ 소비는 기호의 교환 속에서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활동이다.
- ④ 소비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의미를 주고받는 언어적 활동이 된다.
- ⑤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이며 이를 통해 차별화 욕구가 충족된다.

2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의 대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원은 모든 영역에 걸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개방된 자세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영역에 따라 연대적인 인식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 준다. ... (중략)...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가고, 하나의 계획으로 순응시키는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다시 한번 더 종합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 간의 세계 윤리를 배제하고서는 어떠한 인간의 공생과 공존도 불가능하다.
- 종교 간의 평화를 배제하고서는 국가 간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 종교 간의 대화를 배제하고서는 종교 간의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 ① 세계 윤리는 특정 종교의 윤리를 중심으로 정립해야 한다.
- ② 여러 종교에 내재된 보편적 원리를 통해 세계 윤리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생명 존중의 윤리는 문명 간 상이성으로 인해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없다.
- ④ 종교 간의 진정한 대화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⑤ 세계 평화를 위한 보편적 윤리는 종교 간 통합을 통해 하나의 윤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세계는 성스러운 것,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을 : 종교적 고통은 실질적 고통의 표현이며, 동시에 실질적 고통에 대한 항의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고, 무정한 세계의 따뜻함이며, 영혼 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 ① 갑 : 종교적 진리는 일상과 분리된 곳에서 찾아야 한다.
- ② 갑 : 종교는 성스러운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행위이다.
- ③ 을 : 종교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에서 발생한 산물이다.
- ④ 을 : 종교는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 탈피를 위한 고안물이다.
- ⑤ 갑과 을 : 종교는 초자연적 힘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3.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한 그릇의 국수에는 면이 중심을 이루고, 고명은 그 맛을 더할 뿐이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심이 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다른 문화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을 : 샐러드 한 그릇에는 서로 다른 재료들이 본래의 맛과 형태를 유지한 채 함께 담겨 있다. 각자의 문화가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가?
- ② 각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③ 서로 다른 문화가 정체성을 지키며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
- ④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위계 질서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⑤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특색을 더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204.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오늘날 수억 명이 굶주리는 현실 속에서 곡물을 사료로 전환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고단백 음식을 위한 육류 소비가 계속된다면, 이는 지속 가능성과 국가 간 식량 구조 형평성을 위협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셈이다. 음식 선택은 단지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책임 윤리가 요구되는 행위이다.

을 : 식량 문제의 본질은 자원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왜곡에 있다. 시장 구조, 무역 정책, 식량 폐기뿐 아니라 선진국의 식습관과 소비 방식 역시 세계적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육류 위주의 소비는 막대한 곡물 사료 수요를 유발하여 빈곤국의 식량 부족을 심화시키며, 과소비와 폐기는 굶주림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해결은 제도적 개입과 구조 조정과 더불어 개인의 음식 선택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 ① 음식 소비를 개인의 기호 문제에 한정해야 하는가?
- ② 음식 선택 기준은 영양과 미각에 집중되어야 하는가?
- ③ 음식 선택이 세계적 불평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식량 불평등의 원인을 자원의 희소성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⑤ 식량 문제의 해결은 제도 개혁이 아닌 식습관 변화에 있다고 보는가?

205.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내가 말하건대, 사람은 결코 옷 때문에 사람답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몸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옷이다. 누군가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유행을 따르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을 : 나는 기계가 만들어 낸 값비싼 옷을 입지 않는다. 내가 직접 물레를 돌려 짠 천으로 만든 카디*를 입는 것은 노동하는 이들과 연대하며 진정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다.

*카디 : 인도 자급 직물

- ① 갑 : 의복을 통해 사회적 신분이 드러나야만 한다.
- ② 갑 : 의복을 선택할 때 타인의 관점을 따라야만 한다.
- ③ 을 : 의복은 계급 강화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 ④ 을 : 의복을 선택할 때 사회 구성원과의 결속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 의복의 경제적 가치만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20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자연이 요구하는 식사는 소박하며,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피하고 평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호화로운 음식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으며, 검소한 식사는 때로 큰 향연보다 더 즐겁다.

을 : 사람은 소나 돼지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의 꼬를 달게 먹고, 솔개는 쥐를 맛있게 먹는다. 이 넷 중에서 어느 존재가 올바른 맛을 아는가? 내가 보기에는 인의(仁義)라는 도덕 관념이나 시비 판단의 방도도 마구 뒤섞여 있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변별할 수 있겠는가?

- ① 갑 : 자연적 식욕은 충족하되, 과도한 욕구는 경계하며 절제해야 한다.
- ② 갑 :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검소한 식사는 참된 쾌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③ 을 : 자연적 식욕을 충족하며 얻는 모든 감각적 만족은 도에 어긋난다.
- ④ 을 : 자연의 이치에 따라 각 생명체가 추구하는 양식 간에 우열은 없다.
- ⑤ 갑과 을 : 검소하고 절제된 식사를 통한 자족이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20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거주는 단순히 존재하거나 어디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공간 속에서 고정된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를 통해 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초 위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근거가 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거주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거주 공간의 피상적인 소유를 통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게 하는 거주는 인간의 분명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을 : 사람이 살 터를 정할 때는 첫째, 풍수적 조건인 지리(地理), 둘째, 생계의 이익인 생리(生利), 셋째, 이웃 간의 관계인 인심(人心), 넷째, 주변 경관인 산수(山水)가 좋아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 ① 갑 : 거주지의 물리적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한다.
- ② 갑 : 거주를 통해 자신의 삶과 관계의 중심을 능동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③ 을 : 거주 공간의 가치는 자연 및 타인과의 조화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 ④ 을 : 거주 환경의 자연적·인문적 배경은 거주 공간 결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 거주 환경의 비물질적 조건이 인간다움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 계급의 의무가 된다. 상류 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 소비이다. 이 두 방편은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보 기>—

- ㄱ. 경쟁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 욕망과 내적 자율성에서 기인한다.
- ㄴ.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산업 사회에서는 부의 경쟁으로 표현된다.
- ㄷ. 유한계급의 여가 활동은 재력 과시를 통한 명성 획득의 방편이다.
- ㄹ.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9.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종교에 대한 관점 (가), (나)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종교는 문명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세계는 여러 문명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 문명 간의 충돌은 주로 문화적·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갈등, 그리고 중국 문명의 부상이 중요한 국제적 갈등의 원인이다. 종교가 각 문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종교적 차이가 문명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나) 종교는 자연 현상 뒤에 있는 무한을 인식하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무한에 대한 탐구와 신의 사랑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된다. 종교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며, 종교의 발전이 인간의 인식과 함께 진화한다.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종교의 본질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며,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종교를 ㉠ 문명 간 경계와 충돌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나)는 ㉡ 문화 간 이해와 비교를 통해 그 보편성을 탐구하는 대상으로 본다. 또한 종교 간 이해와 관련하여 (가)는 ㉢ 종교가 탈문명화를 촉발시켜 문명 간의 경계와 갈등을 해체했다고 보고, (나)는 ㉣ 다양한 종교의 궁극적 본질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가), (나)는 모두 종교가 ㉤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편은 유한계급은 물론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을 :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기능적 사용 및 소유 등이 아니다.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 과시의 기능이 아니다.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서,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서 정의된다. 현대에서의 차이, 복장, 이데올로기 및 성(性)의 차이조차도 소비의 거대한 연합체 속에서 서로 교환된다. 그것은 기호의 사회화된 교환이다.

- ① 갑 : 소비 동기는 사회의 구조와 분리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 ② 갑 : 소비는 경제적 잉여 과시를 통한 사회적 위계 표현 수단이다.
- ③ 을 : 소비를 통해 개인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한다.
- ④ 갑과 을 : 소비는 생활의 필수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 ⑤ 갑과 을 : 소비 행위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입장을 경계해야 한다.

21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문화 시대에 국가는 단일 민족이 국가를 구성한다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 집단이 경험해 온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조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 국가의 통합과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집단과의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기존 사회의 정체성에 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보다 그들을 수용하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 ① 다양한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공존해야 한다.
- ② 이주민 집단을 주류 사회의 문화 정체성에 동화시켜야 한다.
- ③ 특정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④ 다수 문화 집단과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⑤ 이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해야 한다.

2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실존의 큰 부분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발하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이란 하나의 추상일 뿐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런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된다. 이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신화적 이미지 및 형상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태고의 실존적 상황, 특히 위기의 상황이 낳은 결과이다. 이 때문에 무의식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된다.

- ① 인간은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신성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②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종교적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나 원인으로 간주하고 초월적 존재를 거부한다.
- ④ 인간의 모든 종교적 태도와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 ⑤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적 공간만을 인식하지만, 종교적 인간은 신성이 나타나는 공간을 체험한다.

2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에서 갈등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사회 발전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은 예방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되면 개인의 발전과 집단 재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관심사나 차이점을 표시할 경우 표면상에 드러나는 문제와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외부 집단과의 갈등으로 위협을 받게 되면 집단 내부에는 소속감이 형성되어 응집력이 강화됩니다.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은 갈등 해결을 위해 과거를 성찰해 봄으로써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 ① 갈등은 개인과 조직의 실제 문제의 소재를 드러낸다.
- ② 사회에서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다.
- ③ 갈등은 침체된 조직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④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에 대한 성원들의 동일화를 약화시킨다.
- ⑤ 갈등은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개인과 집단의 도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21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승(大乘)의 법에는 오직 일심(一心)만이 있으니 일심 밖에는 다른 법이 없다. 다만 무명(無明)이 일심을 미혹하게 하여 모든 물결을 일으키니 여섯 갈래 길[六道]에 속하여 해매게 됨을 밝히려 한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학교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 봉사 활동 장소 선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A는 동아리 부원들이 제시한 여러 장소 중 적절한 장소 선택을 위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선정과 관련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 기>

- ㄱ. 상대의 견해를 포용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세요.
- ㄴ. 다양한 의견을 더 높은 차원에서 종합해 보세요.
- ㄷ. 다수의 의사를 기준으로 시비(是非)를 가려 보세요.
- ㄹ. 동아리 회장의 직권으로 봉사 활동 장소를 선택하세요.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君子)는 사람들과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小人)은 똑같아지려고 하지,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同而不和].

- 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덕 원칙의 준수보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자신의 소신을 지켜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④ 다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 ⑤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남북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비록 통일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남북 경제 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총공급과 총수요의 확대를 가져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전체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을 : 남북통일은 남북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실업과 범죄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의 통합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① 갑은 통일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통일 비용을 민족 번영을 위해 유용한 생산적 비용이라고 본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통일을 인도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과 달리 갑은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로 인한 손익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217. 갑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 국가에 제시할 갈등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따라서 사회 집단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문제 상황>

A 국가는 자국 내 심화되고 있는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보를 통해 빈곤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하지만 고소득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① 고소득 계층 사람들의 양심에 끝까지 호소해 보세요.
- ② 개인의 선의지에 의해 집단 간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됨을 명심하세요.
- ③ 빈곤 계층에게 고소득층의 반발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여 이해시켜 보세요.
- ④ 고소득 계층이 자발적으로 빈곤 계층을 돕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보세요.
- ⑤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보세요.

2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즉 타당성에 기반하여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 기>

- ㄱ.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ㄴ. 담론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한다.
- ㄷ.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ㄹ. 담론 참여자들은 도덕규범의 도출 과정에서 규범 준수로 인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19.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비교적 쉬운 사회·경제·문화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될 때 상호 신뢰가 쌓여 정치 분야로의 통합이 가능해진다.</p> <p>을 :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분야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른 분야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p> |
| (나) | |

- ① A :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통일의 선행 과제임을 간과한다.
- ② A :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해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통일에 기여함을 간과한다.
- ④ B :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질성을 제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22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남북한 분단은 대내적으로 같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지녔던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위험, 이산가족의 고통, 남북한의 이질화라는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국제 신용 등급의 하락,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은 필요하지만, 통일 후 발생할 혼란 예방을 위해 성급하게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 일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는 과도기 단계가 필요하고, 비정치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 ① 통일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② 통일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
- ③ 통일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 ④ 통일은 역사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 ⑤ 통일은 평화와 인도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221.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사회는 역동성이 없는 무기력한 사회와 다름없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의 존재가 사회의 건강성을 표상하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하기도 한다. 갈등은 사람들이 이에 직면했을 때 평상시보다 더 혁신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갈등은 다양한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해결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면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보 기> —

ㄱ.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ㄴ.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갈등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ㄷ. 갈등은 사회의 안정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 해결해야 한다.
 ㄹ. 갈등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에 주목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2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유(有)를 싫어하고 공(空)을 좋아함은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다다름과 같다. 비유컨대 청(靑)과 남(藍)이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고,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다 용납함과 같다.
-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一心)이며, 일심은 망상(妄想)과 망념(妄念)을 여윈 것을 말한다. 중생들이 그 경계를 망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분별이 있게 된 것이다.

<문제 상황>

최근 ○○시에서는 원도심인 A 지역 개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A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여한 A 지역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상대 의견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A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① 설명회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수 의견은 배제해야 합니다.
- ② 자신의 관점과 주장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타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 ③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 ④ 서로 다른 의견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⑤ 주민 설명회를 통해 증폭된 주민 상호 간 갈등 해결이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2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군자(君子)는 화합하기는 하나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소인(小人)은 남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화합하지는 못한다. 군자는 의(義)를 체득한 사람으로,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서로 화합하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좇지 않는다.

을 :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아닌 곳에서 모든 법의 진실됨이 허공과는 달라 스스로 신령스러움을 아는 성품이니 이를 마음이라고 한다.

<보 기>

ㄱ. 갑 :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점에서 동일한 생각을 지닐 필요는 없다.

ㄴ. 갑 : 소인은 군자와 달리 제 주관 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기 쉽다.

ㄷ. 을 : 각 종파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전체로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참과 거짓을 명확히 분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조화시켜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22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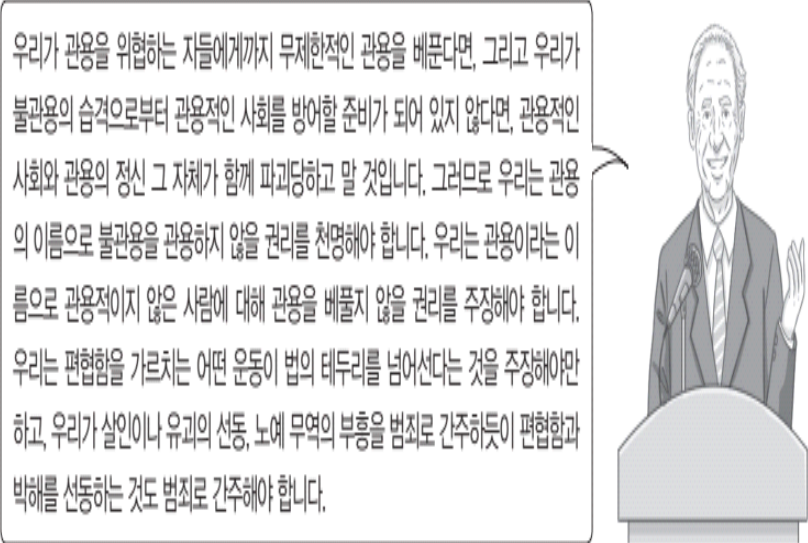
공론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하는 규범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이상적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에 근거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반대가 극심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 A는 어떻게 공청회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공청회 참여자들이 서로 비판할 수 없도록 진행하세요.
- ②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되도록 공청회를 진행하세요.
- ③ 보편화 가능한 규범 수립이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진행하세요.
- ④ 발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수용하고 진행하세요.
- ⑤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이 도출되도록 진행하세요.

22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우리가 불관용의 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의 정신 그 자체가 함께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함을 가르치는 어떤 운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주장해야만 하고, 우리가 살인이나 유괴의 선동, 노예 무역의 부흥을 범죄로 간주하듯이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 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초래한다.
- ② 편협함과 박해를 선동하는 것을 관용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③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때 관용의 역설을 막을 수 있다.
- ④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 ⑤ 관용이 있는 사회가 되려면 타 문화의 모든 문화적 관행을 용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26.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통일은 단절된 민족 공동체의 맥을 다시 이어 가게 할 수 있고, 민족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던 민족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을: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보다 전쟁의 공포를 없앨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은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과도한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다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통일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보 기>

- ㄱ. 갑 : 통일은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ㄴ. 을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통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ㄷ. 갑과 을 : 통일은 민족의 당면 과제이므로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2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 달랐던 삶을 통합하여 한 민족의 재도약 발판이 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 인권,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한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을 : 동의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이익을 주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고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갑 : 아닙니다.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학술과 예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모색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다른 분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선행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①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가?
- ② 통일의 필요성을 역사적 당위의 차원으로만 접근해야 하는가?
- ③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는가?
- ④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질적이었던 삶을 통합하는 일인가?
- ⑤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22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째, 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는 국방비와 같은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고통과 같은 무형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둘째,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게 되면 통일 편익, 즉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통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① 통일 비용을 지출할수록 분단 비용의 지출도 증가한다.
- ② 통일 비용은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비용이다.
- ③ 분단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 ④ 통일 이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교역 증가는 통일 편익에 해당된다.
- ⑤ 분단 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22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정치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 즉 권력의 획득과 유지이며, 국제 정치도 인간에 대한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을 : 각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공화정체는 영원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다.

- ① 갑 : 개별 국가의 권력욕이 국제 정치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② 갑 : 국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권력 투쟁의 연속이다.
- ③ 을 : 강제력을 갖춘 평화 조약은 영구 평화를 보장한다.
- ④ 을 : 진정한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공화 정체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⑤ 갑과 을 :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평화 유지는 실현될 수 있다.

23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폭력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적 의도에 의한 직접적·물리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은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그러한 것의 차이를 유발하여 인간의 실현을 저지시키는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계기, 즉 구조의 요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보 기>—

ㄱ. 직접적 폭력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ㄴ. 종교와 예술, 과학과 법률 속에도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ㄷ.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ㄹ. 평화 개념을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평화 조약과 구별될 수 있다.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반면, 전자는 영원히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에 기초해야 한다.
 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ㄷ. 영구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다.
 ㄹ. 국제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닌 국제 국가로 기능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2.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선동 정치의 산물이다. 문화적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문화 제국주의 전략의 가면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 등 국제적 자본가들의 새로운 계급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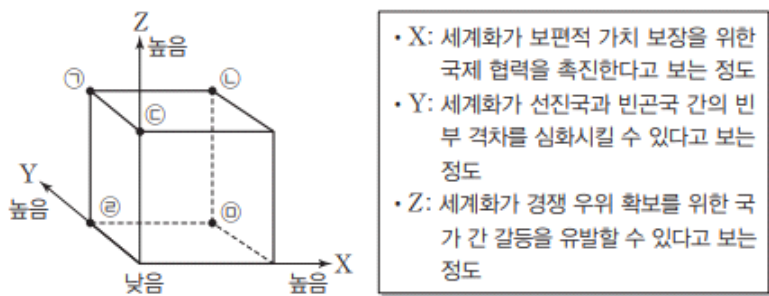
을 : 세계화는 단순한 문화적 표준화나 획일화가 아니라 세계화와 지방화의 타협이 일어나는 세계 지역화 과정이다. 지역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체제는 일방적으로 세계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위반하고 저항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문화 형태를 창조하고 있다.

- ① 갑 : 세계화는 제국주의 논리가 위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 ② 갑 : 세계화는 획일화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확산시킨다.
- ③ 을 : 세계화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
- ④ 을 : 세계화는 지역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 ⑤ 갑과 을 : 세계화는 문화적 취향의 전 세계적인 표준화 현상을 강화시킨다.

233.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 세계화는 각 국가의 다양한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세계화는 환경, 난민, 인권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도모에도 이바지한다.

을 : 세계화는 구조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선진국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는 과도한 경쟁과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보편 윤리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영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 발생을 빈번하게 만든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3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만약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인들보다 음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유럽인들을 우선한다면,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적, 민족과 무관하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빈민을 구제해야 한다.

—<보 기>—

- ㉠.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에 두어야 한다.
- ㉡. 원조 주체의 경제력은 원조 이행의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 ㉢.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해야 한다.
- ㉣. 원조를 이행할 때 먼저 자국의 빈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만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3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 기>—

ㄱ. 원조는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ㄴ. 절대 빈곤한 모든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ㄷ. 원조 대상국에 대한 인권 강조는 원조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ㄹ. 고통받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3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포함하므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가 한 사람에게 위협하여 그가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기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도덕적 제약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을 : 극단적인 빈곤을 막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다면, 마땅히 이를 막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다.

—<보 기>—

ㄱ. 갑 : 빈민을 원조하는 행위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ㄴ. 을 :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다.
 ㄷ. 갑과 을 :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 실현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37.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가의 목표는 국익과 생존이며, 국가는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협 요소이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나) 국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국제 분쟁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ㄱ. (가) : 국가 간 세력의 불균형이 국제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ㄴ. (가) : 국가 간 분쟁은 각국을 통제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ㄷ. (나) :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가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ㄹ. (가)와 (나) :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영원한 평화를 위해 모든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하며,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없는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보 기>—

ㄱ.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

ㄴ.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을 평화 상태의 보증으로 보아야 한다.

ㄷ. 국제 사회의 평화는 자유로운 국가 간의 국제 연맹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ㄹ.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 국제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3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영원한 평화는 확실히 하나의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다. 그럼에도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에, 또한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실현될 수 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들 수 있다.

을 :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의 어떤 꼭짓점에서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짓점으로 쉽사리 전달된다. 참된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폭력을 자행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이다.

- ① 갑 : 영원한 평화 실현을 위해 각국의 어떤 정치 체제도 허용될 수 있다.
- ② 갑 : 국가 간 분쟁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 ③ 을 : 폭력은 항상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되어 다른 폭력으로 전이된다.
- ④ 을 : 직접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없다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완비된다.
- ⑤ 갑과 을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반드시 평화적일 필요는 없다.

240. (가)의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세계화로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이 증가하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게 되며, 경쟁 증가의 이익은 결국 비교 우위의 법칙에 따라 실현된다. 즉 시장 개방은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시장 개방과 규칙에 기초한 무역은 모두에게 시장 접근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번영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장치이다.</p> <p>을 : 세계화로 시장 개방이 진행될수록 개발 도상국 생산자는 선진국 생산자에 비해 수출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경쟁이 발생한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부국의 빈국에 대한 비교 우위만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방해한다.</p> |
| (나) | |

—<보 기>—

- ㄱ. A : 시장 개방이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함을 간과한다.
- ㄴ. A : 시장 개방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때 기여도보다 형평성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ㄷ. B : 세계화로 부국과 빈국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 ㄹ. B : 세계화로 인한 시장 개방은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에 더 많은 이익을 주게 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4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대해 말해야 한다. 폭력에는 사회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간접적 폭력과 언어·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직접적 폭력이 있다.
 을 :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이다. 국가 간의 평화 유지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가능하다.

<보 기>

ㄱ. 갑 : 진정한 평화는 국가 안보를 넘어선 인간 안보의 실현에 있다.
 ㄴ. 을 : 국제 정치에서 군사력이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ㄷ. 을 :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대체할 보편적 도덕 원칙은 없다.
 ㄹ. 갑과 을 : 국제 연맹을 통해 국가 간 침략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4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 ① 갑 :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에 두어야 한다.
- ② 갑 : 모든 사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 소득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 ③ 을 : 차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 간의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④ 을 : 독재나 착취가 행해지는 무법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 자원이 부족한 모든 빈곤국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24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느껴지게 만든다. 이 중 문화적 폭력은 언어, 예술, 종교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직접적·구조적 폭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한다.

- ① 정치 제도의 개선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② 평화 실현을 위해 폭력의 감소보다 폭력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 ③ 직접적 폭력은 문화적 폭력과 달리 반복된 폭력을 낳을 수 있다.
- ④ 정치와 경제 분야의 억압과 착취는 구조적 폭력의 주요 형태이다.
- ⑤ 종교와 예술이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24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우리는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혜택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곳에 제공해야 한다.</p> <p>을 : 빈약한 부와 천연자원을 가진 사회는 만약 그 사회의 도덕적인 신념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법, 재산 그리고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요 --> C{C} C -- 예 --> E[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small;"> <p><범례></p> <p>□ : 출발 조건</p> <p>◇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p> <p>⌋ : 사상가의 입장</p> </div> |

<보 기>

- ㄱ. A :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는가?
- ㄴ. B : 원조의 대상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ㄷ. C :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 평준화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ㄹ. C : 고통받는 사회의 부가 증가하도록 온정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표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
| 1 | 2 | 21 | 3 | 41 | 5 | 61 | 5 | 81 | 4 |
| 2 | 1 | 22 | 5 | 42 | 1 | 62 | 2 | 82 | 1 |
| 3 | 4 | 23 | 5 | 43 | 4 | 63 | 4 | 83 | 4 |
| 4 | 2 | 24 | 2 | 44 | 1 | 64 | 3 | 84 | 2 |
| 5 | 3 | 25 | 4 | 45 | 1 | 65 | 4 | 85 | 4 |
| 6 | 3 | 26 | 3 | 46 | 1 | 66 | 4 | 86 | 2 |
| 7 | 4 | 27 | 4 | 47 | 4 | 67 | 2 | 87 | 3 |
| 8 | 4 | 28 | 5 | 48 | 2 | 68 | 4 | 88 | 3 |
| 9 | 5 | 29 | 4 | 49 | 5 | 69 | 3 | 89 | 4 |
| 10 | 3 | 30 | 4 | 50 | 5 | 70 | 3 | 90 | 3 |
| 11 | 5 | 31 | 3 | 51 | 2 | 71 | 5 | 91 | 2 |
| 12 | 3 | 32 | 5 | 52 | 1 | 72 | 4 | 92 | 3 |
| 13 | 4 | 33 | 3 | 53 | 1 | 73 | 5 | 93 | 3 |
| 14 | 5 | 34 | 1 | 54 | 3 | 74 | 5 | 94 | 2 |
| 15 | 5 | 35 | 1 | 55 | 1 | 75 | 1 | 95 | 3 |
| 16 | 4 | 36 | 3 | 56 | 3 | 76 | 1 | 96 | 3 |
| 17 | 4 | 37 | 4 | 57 | 4 | 77 | 3 | 97 | 4 |
| 18 | 3 | 38 | 3 | 58 | 5 | 78 | 4 | 98 | 1 |
| 19 | 4 | 39 | 2 | 59 | 4 | 79 | 3 | 99 | 2 |
| 20 | 2 | 40 | 4 | 60 | 4 | 80 | 3 | 100 | 3 |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
| 101 | 1 | 121 | 1 | 141 | 5 | 161 | 2 | 181 | 3 |
| 102 | 4 | 122 | 5 | 142 | 3 | 162 | 2 | 182 | 5 |
| 103 | 2 | 123 | 5 | 143 | 3 | 163 | 4 | 183 | 3 |
| 104 | 4 | 124 | 1 | 144 | 3 | 164 | 2 | 184 | 1 |
| 105 | 1 | 125 | 1 | 145 | 4 | 165 | 4 | 185 | 3 |
| 106 | 1 | 126 | 5 | 146 | 5 | 166 | 4 | 186 | 1 |
| 107 | 5 | 127 | 4 | 147 | 3 | 167 | 1 | 187 | 3 |
| 108 | 1 | 128 | 5 | 148 | 5 | 168 | 5 | 188 | 3 |
| 109 | 1 | 129 | 2 | 149 | 2 | 169 | 3 | 189 | 2 |
| 110 | 5 | 130 | 2 | 150 | 2 | 170 | 4 | 190 | 3 |
| 111 | 4 | 131 | 3 | 151 | 2 | 171 | 3 | 191 | 5 |
| 112 | 3 | 132 | 4 | 152 | 1 | 172 | 4 | 192 | 4 |
| 113 | 3 | 133 | 4 | 153 | 4 | 173 | 2 | 193 | 5 |
| 114 | 1 | 134 | 2 | 154 | 2 | 174 | 3 | 194 | 5 |
| 115 | 5 | 135 | 3 | 155 | 5 | 175 | 1 | 195 | 1 |
| 116 | 3 | 136 | 2 | 156 | 4 | 176 | 2 | 196 | 4 |
| 117 | 1 | 137 | 4 | 157 | 1 | 177 | 1 | 197 | 3 |
| 118 | 3 | 138 | 2 | 158 | 5 | 178 | 5 | 198 | 2 |
| 119 | 3 | 139 | 5 | 159 | 5 | 179 | 5 | 199 | 5 |
| 120 | 4 | 140 | 3 | 160 | 4 | 180 | 4 | 200 | 2 |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문항 번호 | 정답 |
|----------|----|----------|----|----------|----|----------|----|----------|----|
| 201 | 2 | 221 | 1 | 241 | 4 | | | | |
| 202 | 1 | 222 | 4 | 242 | 1 | | | | |
| 203 | 2 | 223 | 4 | 243 | 3 | | | | |
| 204 | 3 | 224 | 5 | 244 | 1 | | | | |
| 205 | 4 | 225 | 5 | | | | | | |
| 206 | 3 | 226 | 3 | | | | | | |
| 207 | 1 | 227 | 5 | | | | | | |
| 208 | 5 | 228 | 1 | | | | | | |
| 209 | 3 | 229 | 3 | | | | | | |
| 210 | 2 | 230 | 1 | | | | | | |
| 211 | 2 | 231 | 4 | | | | | | |
| 212 | 4 | 232 | 5 | | | | | | |
| 213 | 4 | 233 | 1 | | | | | | |
| 214 | 1 | 234 | 4 | | | | | | |
| 215 | 1 | 235 | 3 | | | | | | |
| 216 | 5 | 236 | 4 | | | | | | |
| 217 | 5 | 237 | 2 | | | | | | |
| 218 | 4 | 238 | 2 | | | | | | |
| 219 | 1 | 239 | 2 | | | | | | |
| 220 | 2 | 240 | 2 | | | | | | |